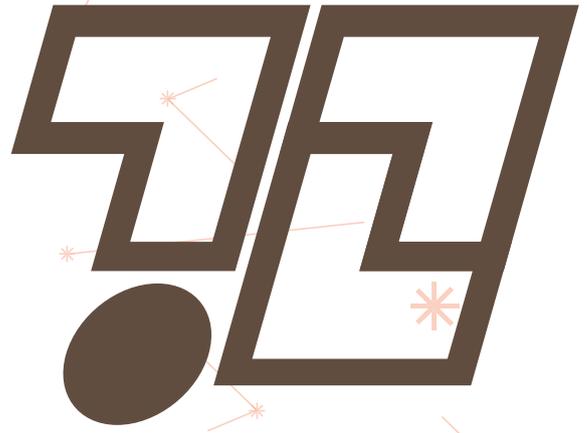


독립연구자네트워크 무크지 <궁리VOL.1>



www.gungli.net

여는 글

사람들과 어울려 책을 읽기 시작했고, 말을 섞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라는 것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는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라는 장 그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연구자로 살면,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따지 않더라도, 돈은 조금 벌더라도, 세상과 만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일이 연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면, 저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주저했습니다. 공부를 한다, 대학원생이다, 연구를 한다... 연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연구소에 다니는지 묻지만, 저는 딱히 소속이 없습니다.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원에 들어갔고, 석사만으로는 독립 연구자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대출을 받아서 박사를 들어가면, 나는 행복할까, 그러면 나는 연구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도 연구용역을 하며, 생각합니다. 언젠가, 나도 독립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언젠가.. 언젠가.. 보낸 세월이 벌써 몇 년. 이제는 미래가 아닌 지금-여기에서 뭔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상황, 나의 처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혼자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 궁리, 먹을 궁리, 연구할 궁리를 하다보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개개인이 만나 우리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독립연구자 네트워크’라는 발상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만났지만, 첫 만남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독립연구자’는 뭐지? 모이는 것 말고, 그 다음은?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지? 우리는 왜 빈곤하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연구를 하지? 질문을 던질수록 아리송해지는 물음들. 이제 와서 그만두기에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고민 끝에 무크지 <궁리>를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질문을 던지다보면 무엇이든 나오지 않을까. 개인은 부족하더라도, 여러명이 모이면, 여러 개의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연구자들을 만나고, 그 결을 이어보자.

<궁리>는 우주에 외따로 별들을 이어 탄생한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성좌 그리기는 지금, 여기서 시작합니다.

독립연구자를 위한 무크지 <궁리> 기획단 드림.

목차

여는 글 02 독립연구자를 위한 무크지 <공리> 기획단 글	비평 07 지금,여기, 미증유의 실험	에세이 13 독립연구자들의 부재하는 생태계
에세이 18 깊고 질퍽한 눈, 그 이름 '연구용역'	인터뷰 23 “연구는 운동의 막혔던 부분을 뚫어주고, 방향을 찾게 해주죠” : 연구하는 활동가 나영을 만나다	인터뷰 34 대학 밖에서, 독립연구자의 가능성을 묻다
집담회1 41 1부. 독립연구자, 너는 누구냐? : 정체성, 연구 생산, 플랫폼에 묻고 답하다	집담회2 62 2부. 생존, 그 너머를 도모한 다는 것 : 정체성, 연구 생산, 플랫폼에 묻고 답하다	클라우드 편당 77 연구선정자소개 갱, 박희정 : 한국 코믹스 페미니즘 계보 송창은 : "이번 미팅 때 팀장님께 프로젝트 컨펌 받았어?" 여기봉 :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진다?!
연구 공동체/들 86 기 - 목 바 - 오 스 - 흥	함께한 사람들 90 기획 함께한 사람들	



未曾有

누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치의 지형은 바뀌었다. 연구자의 사회적 권리 요구가 정치적 대의의 종말이라는 낯은 서사로 변안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누군가 역사의 끝을 보고 있다면 그들의 어법에 따라 그것은 정치의 퇴행을 뜻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알던 정치의 한 계상황을 가리키는 지표일 뿐이며, 우리는 선배세대들이 이룩한 찬란한 역사적 배제의 끝자락에서 어떻게든 몸부림치고자 한다. 생존과 궁리라는 우리들의 지배적 정서구조는 정치의 지형 속으로 인입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독립연구자들은 '독립'할 수 있을까. 독립연구자네트워크가 어떤 효과를 산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비평
Criticism



비평 Criticism

지금, 여기, 미증유의 실험

독립연구자네트워크 무크지 <궁리VOL.1>

비평

지금, 여기, 미증유의 실험

김성윤 |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독립과 궁리

지금 이 시점, 나는 ‘독립연구자네트워크’의 웹진 <궁리>에 글을 쓰고 있다. 그런데 ‘독립’연구자라는 말이 시작을 어렵게 만든다. 이 말에는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으로부터 독립일까. 당연히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일 것이다. 문제는 이게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하는 데서 온다. 우리는 스스로 원해서 독립한 것일까. 아니면 원치 않게 독립 상태에 있는 것일까. 좀 더 의미부여를 해보면 이렇다. 우리는 제도권으로부터 탈주하는 연구자일까, 아니면 배제된 연구자일까. 어쩌면 그 둘 모두일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독립연구자란 것은 지금 이 순간 존재론적 동요 상태에 있는 연구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그럴듯하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다.

이건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자, 우리들에 대한 질문이며, 동시에 오늘날 인문사회과학 연구자의 처지와 실존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동요와 불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언젠가 독립예술이란 말이 나왔던 예술계와 비교해본다면 독립연구자라는 말은 더더욱 불안한 말이다. 독립예술에서 독립은 제도권과 상징질서에 대한 대항적 맥락의 의미가 강했다. 심지어 독립과 예술이 사실 동의반복에 불과할 뿐 예술은 응당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었다. 그에 반해 ‘독립+연구’는 어떤가. 독립연구자라고 말은 하지만 대다수 연구자들은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제도권으로 들어가고자 할 것이다. 교수 자리나 연구원 자리가 있다면 독립연구자 따위는 언제든 때려치우지 않을까. 그러니 오늘날 독립연구자의 독립이 독립 예술가의 독립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독립’ 외에는 우리 자신을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이러저러한 까닭들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는 있지만, 이전 세대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인 건 누구나 알고 있다. 예전에도 교수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지만 어디 요즘에 비할 수 있을까. 특히나 인문학이 교양학부로 편재되는 상황에서 전문 연구자가 언제까지 재생산될 수 있을지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것이다. 오늘날 누군가가 연구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거기에는 (딱히 다른 표현이 어려운) 불안 가득한 독립적인 삶에 대한 고려까지도 포함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수 되려고 연구자가 된다? 그것은 운 좋고 야심찬 예외일 뿐, 오늘날 교수가 되기 위해 연구자의 길로 들어설 사람은 드물다. 이것은 소장학자와 청년 연구자들이 제도권에 대한 사양지심이 있어서란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제도권 진입에 대한 욕망은 종종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연구자가 오래된 도덕률의 신봉자라 볼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만약 ‘궁리’라는 웹진 제목이 (작당모의 외에도) 먹고 살 궁리라는 뜻까지 갖고 있는 것이라면,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과거와는 전

혀 다른 논쟁의 지형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가리킬 것이다. 지식인으로서 고고한 삶을 위해 실존적 투쟁을 하던 것을 ‘사회 상태’에서의 투쟁이라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고 싶은 것과 의미 있는 것을 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교적 ‘자연 상태’에서의 투쟁을 하고 있다.

생존과 네트워크

한때 재야학자를 꿈꾸던 적이 있다. 누군가 “공부는 왜 해? 공부해서 뭐 먹고 살려고?” 라고 물어오면 천연덕스럽게 대답하곤 했다. “난 재야학자가 될 거야.” 전설로만 듣던 선배 세대들의 재야 투쟁기는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욕망하게끔 했다. 나도 역사의 한 자리에서 뜻하는 바를 닦고 펼칠 수 있을까. 내가 전공하는 사회학 분야에서 상도연구실의 학술운동은 말 그대로 전설이다. 신군부 시절 강단 밖으로 나와 비제도권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뿐만 아니라 한국적 산업사회학과 비판사회학의 틀을 구축했던 전례는 청년 시절의 나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상도연구실의 후신인 비판사회학회마저도 많은 학술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발 빠르게 제도화되었다. 비판사회학회 역시 일종의 학회 권력 문제와도 더 이상은 무관하지 않게 됐다. 87체제의 학술운동 유산이 과거의 명맥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자신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연구업적 점수와 학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자 개인들의 욕망, 학회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재정적 몸부림,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재단에 대한 의존. 한때 학술진흥재단(현 연구재단)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였던 학술운동단체협의회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학술단체협의회는 달라진 세계에 조금씩 형태를 잃어가고 있다. 오늘날 학술운동단체협의회란 조직을 아는 청년연구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정말로 한국지성사 내지 학술운동의 위기라도 온 것일까. 단언컨대, 위기나 종말에 준하는 어떤 사태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식인의 사명으로

서 역사의식의 위기라기보다는, 선배세대들이 알던 역사의 종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이의 눈에는 독립연구자네트워크가 여러모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들이 말하는 독립은 통념적으로 소망되는 대항적 지식인의 위치성과 다를 수 있다. 우리들의 네트워킹 방식 역시 익히 알던 조직화 방식과 다를 수 있다. 다른 세상을 지향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들의 독립에서는 생존과 수평적 연대의 문제가 중요하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의 학술운동 또는 그 어떤 형태의 이론적 실천도 과거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맥락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 예술계의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동시에 드러내고자 하는 환경이 일찍이 예술계에서도 일어났던 바 있기 때문이다. 독립예술운동이 대안공간운동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 주지하듯이 예술운동의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대안공간운동이 파훼되고 오늘날처럼 도시 곳곳의 신생공간으로 점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지 구축에 실패했거나 일부는 제도화됐고 이제는 살아남기 바쁘다는 방증일 것이다. 자본주의적 질서와 감각의 바깥을 꿈꾸던 예술운동이 예술인 복지와 예술 노동 같은 의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운동을 둘러싼 통념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적어도 운동과 정치의 지형이 재편됐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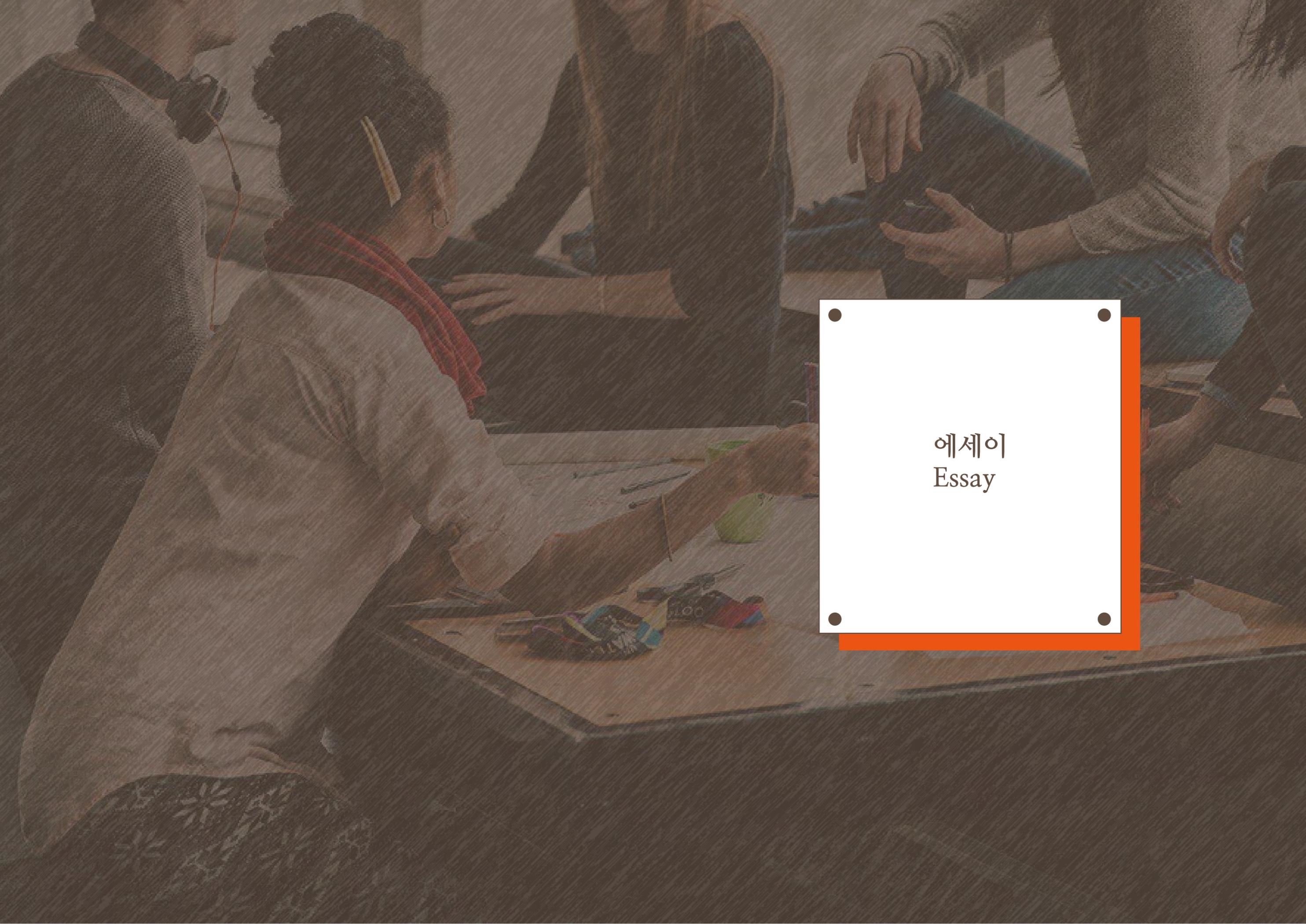
학술운동이란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게 된다. 수유+너머가 연구공동체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것은 아주 오래된 학술운동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이후의 제도 바깥 연구단체들의 설립은 예술계의 대안공간운동과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물론 그마저도 이제는 지나간 역사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학교와 민간연구단체 곳곳을 배회하며 독립연구자에 준하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다가오는 생존과 공존의 문제. 따라서 조금씩 목소리를 모으게 된다. 연구자의 사회적 권리란 대체 무엇인지, 어쩌서 우리의 요구가 정치적 요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구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등.

연구자의 사회적 권리

단순히 생존주의의 절박함을 호소하려는 게 아니다. 누군가는 우리들의 목소리에서 낯 뜨거운 르포르타주를 읽어내려 할지도 모른다. 자살하는 시간 강사, 착취당하는 대학원생, 취업 못하는 청년 연구자 같이 모종의 계열화된 이미지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물론 그런 식의 인상을 애써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또한 현실이니까.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독립연구자네트워크가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들 사이에서 어떤 합의되지 않는 암묵적 대의가 꿈틀거리고 있음에도 주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나는 연구자이자 시민으로서 응당한 사회적 권리를 요구한다.

누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치의 지형은 바뀌었다. 연구자의 사회적 권리 요구가 정치적 대의의 종말이라는 낯은 서사로 변안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누군가 역사의 끝을 보고 있다면 그들의 어법에 따라 그것은 정치의 퇴행을 뜻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알던 정치의 한계상황을 가리키는 지표일 뿐이며, 우리는 선배세대들이 이룩한 찬란한 역사적 배제의 끝자락에서 어떻게든 몸부림치고자 한다. 생존과 공리라는 우리들의 지배적 정서구조는 정치의 지형 속으로 인입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독립연구자들은 '독립'할 수 있을까. 독립연구자네트워크가 어떤 효과를 산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에세이
Essay



에세이 Essay

독립연구자들의 부재하는 생태계

독립연구자들의 부재하는 생태계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내가 '독립연구자'라구요?

소위 말하는 '인문학 공부'를 더듬더듬 시작한지 10년이 되어간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들으러 갔었다. 그 다음에는 말도 안 되는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철학책을 읽기 위해 세미나를 시작했다. 나중에 정신차리고 보니 각종 세미나와 보다 심화된 강독강좌들로 일주일을 꼬박 채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퇴근 후 세 시간 동안 진행되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을 버텨내는 힘이 되었지만, 공부에 대한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급기야 직장을 훌가분하게 때려치우고 반백수의 길을 선택하며 연구소에 매일같이 나와 앉아있게 되었다. 이제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동료의 글을 함께 토론하는 일이 어느새 하루의 익숙한 일과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나를 ‘연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애초에 연구자가 될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내가 만난 연구자들은 제도권에서 연구의 자격을 부여받은 석사 혹은 박사, 그것도 아니면 교수들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연구자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는 비연구자로서 연구실생활을 하고 있었다고나 할까. 그럼에도 내가 공부했던 연구공간은 나를 제도 바깥, 대안적인 연구공간에서 훈련받은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연구자’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지금까지도 나는 극구 ‘연구자’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연구자 동료들과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글을 쓴다. 때로는 현장조사를 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왜 ‘연구자’라는, 특히 ‘독립연구자’라는 정체성에 저항하는가.

통상 독립연구자는 박사학위 이후, ‘적’이 없지만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는 고학력 박사 백수들을 일컫는 말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정반대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이라는 적이 있지만, 연구자로서의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굳이 말하자면 비제도적 연구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나. 아무튼, 나에게서는 ‘~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에서 ‘~’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정의도 도무지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연구자’는 정체성 이전에 사회적 지위이다. 연구자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지위인데, 이를 위해 제도권 안에서는 ‘학위’라는 인증과정과 ‘학회’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즉 이미 제도권 안에서는 직업이 무엇이든(교수거나, 시간강사거나 혹은 직업이 딱히 없거나) 학위 중이거나 학위를 마치게 되면,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갖고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이자 자격이 부여된다.

이들 연구자들은 제도권 안에서만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권에

서 인증 받은 연구자들은 제도 안에 속하지만 제도의 바깥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기에 석·박사생들이 더 이상 학교 안에서 자신의 생계와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오늘날의 조건과 맞물려 ‘독립연구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지만 독립연구자는 제도적 시스템 ‘안에서’ 존재한다.

독립연구자들이 생산되기 위한 조건

나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나와 함께 공부했던 대안 연구공간에서의 선생님들과 동료들은 끝내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연구자’를 생산하는데 실패했다. 나름대로 대안적인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고 매 학기마다 논문을 제출하고, 학점을 매기고, 소정의 학기를 수료하면 졸업논문을 작성하게 하는 대안적인 연구자 인증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연구자의 정체성에 저항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직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고, 독자적인 연구 생산물을 세상에 내놓는 게 낫설고 부끄럽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독립적인 연구자라는 지위가 아니라, 연구 생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부재하기다는 것 때문이다.

연구실의 동료들은 대학원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능력 있는 연구역량이 연구실 안에서 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바라는 것은 석사든, 박사든, 직장인이든, 백수든 비제도적이고 독립적인 연구물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장이다. 그 안에서 제도권에서 훈련받은 석·박사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주체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격들과 무관하게 자신의 생산물들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서지 않는다면 독립연구자라는 지위는 자족적이거나 자폐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독립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꿈꾸기 전에, 아니 그러한 자유로운 연

구자들의 연합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의 생산물들이 유통되는 구조를, 그러한 생태계가 존재해야 한다. 독립연구자들이 모여 연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독립연구자라는 정체성은 연구의 생산과 사회적 유통의 결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많은 ‘~으로부터 독립적인’ 연구 생산물들이 유통될 수 있는 생산-유통의 흐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먼저 존재해야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영화는 독립영화인들이 만든 영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독립영화를 제작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러한 시스템이 독립영화의 정신과 이념을 현실화하고 재생산할 수 있게 한다. 때로는 상업영화를 찍는 감독이나 배우가 독립영화를 생산하기도 하며, 독립영화를 생산하던 사람들이 상업영화에 참여하기도 한다. 독립영화인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독립영화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독립연구자라는 정체성 이전에 독립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독립연구가 생산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연구자의 지위나 직책 혹은 스스로의 정체성이 아니라 연구생산물의 성격에 따라 독립의 의미가 부여된다면, 그 안에서는 보다 더 폭넓은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제도권 안에서 생산되는 연구의 압도적인 양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연구의 질에 대해 집착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롭되, 제도적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인증’보다 더 까다로운, 문턱 높은 그런 ‘장’ 말이다. 





에세이 Essay

깊고 질퍽한 늪, 그 이름 '연구용역'

독립연구자네트워크 무크지 <공리VOL.1>

에세이

깊고 질퍽한 늪, 그 이름 '연구용역'

연구자 : 최혁규, 글: 강남규 | 문화사회연구소



나는 바쁘다. 정말 바쁘다. 항상 뭔가 시작을 하는데, 끝나는 법이 없다. 나는 너무 바빠서, 원고청탁으로 들어온 에세이마저 누군가가 대필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대필자가 나를 관찰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재구성한 나의 이야기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바쁘다. 내가 이렇게 바쁜 건 연구용역 때문인데, 작년에만 하더라도 다섯 개의 연구용역을 했다. 그것도 동시에! 그 중 일부는 해가 바뀌고 1/4분기의 반이 지난 지금도 끝이 안 났다. 처음 연구용역을 시작한 건 2013년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용역을 했나. 세어보면 열다섯 개다. 나는 어쩌다 연구용역의 늪에 빠지게 됐을까.

연구용역이란, 어떤 기관이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외부 인력에 돈을 주고 맡기는 것이다. 기관에서는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요하거나, 내부에 해당 연구를 수행할 인력이 없을 때, 용역을 발주한다. 연구용역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속하지 않은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득 창구 중 하나이다. 당연히 이렇게 벌어들여주는 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연구를 하기 위한 일종의 연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들 알듯이 개인연구는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나는 연구용역의 노예들 중 으뜸가는 노예이다. 나는 ‘활동가이자 연구자, 혹은 연구자이자 활동가’이다. 문화연대에서 활동했고 석사 코스웍하며 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으로 있다. 올 한해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사업에 계약직 실무자로 취직했다. 동시에 재작년부터는 석사 논문을 집필하는 ‘시늬’를 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논문을 끝내는 게 목표이다. 애초 계획은 작년 하반기였으나 실패했다. 그 이유는 연구용역을 하느라. 정확히 말하면, 너무 많은 연구용역을 하느라 건강을 잃었다. 목, 허리, 손목, 그리고 정신적 고통까지. 성한 곳이 없다.

나는 어찌자고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을 맡게 됐을까? 용역을 시작한 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생계비뿐만 아니라 갚을 돈도 많았다. 돈을 빌려야 했던 것도 연구용역에 생계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대개 연구용역은 회계연도 등의 사정으로 연중~연말에 많이 풀리고, 연초에는 잘 없다. 연초가 연구자에게 보릿고개인 셈이다. 그래서 연초에는 돈을 빌려 생계를 해결한다. 그리고 연중에는 그 돈을 갚으려 무리하게 연구용역을 떠맡는다. 악순환이다. 그래도 용역을 다섯 개나 수행한 작년에는 제법 생계가 괜찮았다. 가끔 마라탕이나 양꼬치 같은 걸 먹고, 자주 술을 사먹을 정도로.

연구용역에서 내가 맡는 일은 대개 연구보조원이다. 연구용역은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그리고 연구보조원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나는 제일 말단의 연구보조원이다. 보통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석박사 이상 학

위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속해있어야 한다. 아니면 상당한 연구경력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정도가 최대기준이다. 주로 연구팀 연락, 회의 준비, 예산 관리 및 정산, 원고취합, 녹취 및 편집 등의 업무를 맡는다. 그뿐이라. 연구진과 발주 기관 사이의 소통도 연구보조원의 몫이다.

아무리 연구 계획을 잘 세워도 여러 사람이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일정도 불규칙하고 돌발적인 상황이 많다. 대부분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분들은 소위 말하는 ‘바쁘신 분들’이다. 그래서 다른 연구원들의 일정에 연구보조원이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고, 비상사태(!) 때는 내 몫 이상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서 자기의 일정이나 생활패턴이 비틀어지는 건 일쭤고 거기에 감정소모나 건강 악화는 자연스레 따라온다. (그래도 팀워크가 좋으면 버틸 만 하다.)

연구보조원은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에 비해 지급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적다. 연구를 업으로 삼자니, 한두 건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고. 그래서 여러 건을 수행하다가 몸도 마음도 건강이 악화되고 소진된다. 석·박사 학위가 없거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들이 겪는 딜레마와 악순환이다. 연구용역으로 생계를 유지하려 하면 빠지게 되는 늪이다. 그래서 연구원 기준의 유연화와 인건비 실질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금전적 이유로만 연구용역을 하지는 않는다. 만약 돈이 우선이었다면 차라리 연구용역보다는 이런저런 알바를 했을 거다. 그 편이 더 생계가 낮고 생활패턴도 안정적이다. 그런데 나는 ‘활동가이자 연구자, 혹은 연구자이자 활동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익힌다거나, 현장연구의 감각 또는 정책적 감각을 배운다. 연구하는 삶을 지향하는 한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연구용역을 하면서 보람이 있는 건 단지 어떤 연구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화영향평가 작업은 도시정책 등 여러 정책에 문화적 관점으로 비판적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활동하는 삶을 사는 한 이런

“우리가 거의 다 할 거고, 너는 그냥 조금만 참여해주면 된다”,
누구나 속지만 적어도 한 번은 더 속는 그 말에 반신반의하지만
기어이 또 속는다.

기회를 놓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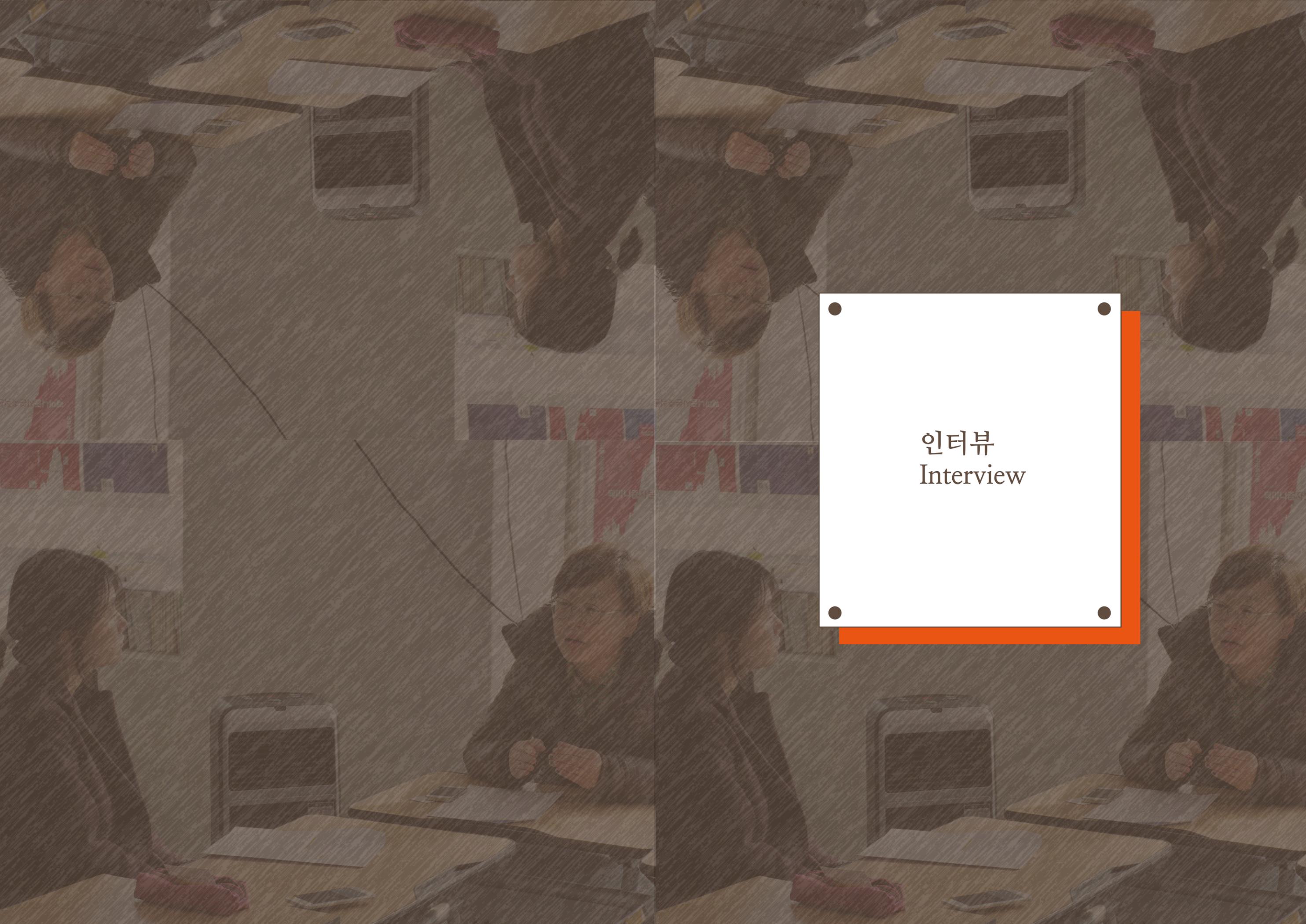
어떤 용역은 어쩔 수 없이 떠안기도 했다. 대체로 관계의 문제다. 친한 지인이, 혹은 선배가 어느날 “네가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온다. 가끔 “네가 꼭 필요하다”는 말도 얹힌다. 언젠가의 순간에 자신에게 기꺼이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요청이니 쉬이 거절할 수 없다. “우리가 거의 다 할 거고, 너는 그냥 조금만 참여해주면 된다”는, 누구나 속지만 적어도 한 번은 더 속는 그 말에 반신반의하지만 기어이 또 속는다.

**“우리가 거의 다 할 거고, 너는 그냥 조금만 참여해주면 된다”,
누구나 속지만 적어도 한 번은 더 속는 그 말에 반신반의하지만
기어이 또 속는다.**

정신 차려보면 자기 몸에만 무책임하고 모든 것에 책임을 느끼는 무책임한 책임감이 나를 과로하게 만들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연구, 예비연구자로서 스스로 설정했던 나의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를 못하고 있다는 죄의식 같은 게 마음을 조여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나의 몫이다. 그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나는 올해에는 연구용역을 안 하거나 줄일 계획이다. 일단 1년 동안 생계를 막아줄 일자리가 생겼고, 잃어버린 건강을 찾아야 하고, 무엇보다 석사논문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석사논문 주제는 ‘메이커 운동의 문화정치’, 2016년 초부터 시작한 연구를 2018년까지 붙잡고 있다. 너무 오래 잡았다. 논문이 끝나면(끝난다면!), 그때는 내가 그동안 연구한 주제, 그리고 연구할 주제와 맞닿은 연구용역을 하고 싶다. 하지만 내년이 되면 또다시 악순환이 시작되겠지.

오늘도 많은 독립연구자들은 “이번까지만, 이번까지만…” 하면서 연구용역을 꾸역꾸역 수행하고 있겠지.. 금전적 곤란만 해결되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연구하려 갈 거라고 조용히 다짐하면서… 생계의 높은 깊고도 질퍽하다. 쉬이 이 늪을 벗어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인터뷰
Interview



Interview

인터뷰

"연구는 운동의 막혔던 부분을
뚫어주고, 방향을 찾게 해주죠"

독립연구자네트워크 무크지 <공리VOL.1>

인터뷰

**"연구는 운동의 막혔던 부분을 뚫어주고,
방향을 찾게 해주죠"**

인터뷰: 나영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글: 안태진 | 자유인문캠프 사진: 장민경 | 자유인문캠프

지난 2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나영을 만나 연구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어디서든 "선생님", 어디서든 활동가 대우를 받는다는 나영은 "활동가는 당연히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활동 한가운데서 '운동을 하다 보니 필요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에서 현장과 이론이 떨어질 수 없음을 확인했다. 나영을 독립연구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질문을 되돌려보았다.



인터뷰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에서 진행했다. (왼쪽) 안태진, (오른쪽) 나영 활동가.

Q. '독립연구자'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제가 생각했던 개념은 지금 학계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Q. 스스로 독립연구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웃음) 저를 연구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활동가 정체성이 제일 강하고, 활동하면서 필요한 전망과 방향을 고민하다 보니 관련된 글도 쓰고 공부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만 최근에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연구자로 대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낙태죄나 보수 개신교와 관련해서 대학이나 연구소, 토론회 참여를 요청받거나, 학술지 청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저를 활동가이면서, 현장에서 글을 쓰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부르는 것 같아요.

Q. 그동안 어떤 활동과 연구를 하셨나요?

성과 생산/재생산, 성과 노동에 관련된 것들과 한국에서 섹슈얼리티와 보수개신교의 혐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그 주제와 가까워진 과정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활동하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이하 'NGA')는, 설립할 때 페미니즘과 함께 적녹보라 패러다임과 지구지역액티비즘 등을 중요한 이론적 바탕으로 삼고 시작했지만 이를 실제 활동에 어떻게 접목시킬지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설립 이후 지금까지가 그 운동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단체가 올해로 9년차인데 3, 4년 전부터 노동, 생산/재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해오고 있어요. 그동안 노동과 생산/재생산이라고 규정됐던 논의에서 비가시화 됐던 것은 무엇이고, 기존 운동과 정치의 한계와 이를 어떻게 적녹보라 패러다임이 가진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왔죠. 임금노동뿐 아니라 임금화되지 않는 노동, 지금 재생산이라고 여겨지는 영역의 다양한 맥락과, 재생산 노동 중에서도 비가시

화/비가치화 되는 것들을 이야기 하고 연결시켜 보는 논의를 해 왔고 이를 네트워크로 구성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수 개신교와 관련해서는 제가 2010년에 NGA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부에 있는 연구활동모임 중 하나인 '섹슈얼리티 공작소'를 같이 했어요. 당시에 게일루빈의 <성을 사유하기> 번역도 했는데, 그때 마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보수 개신교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나서던 때여서 그걸 보다 보니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연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거죠.



낙태를 반대하는 종교인들은 매년 "생명대행진 코리아" 행사를 연다. (출처: 가톨릭 평화방송)

Q. 낙태죄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2010년에 '임신·출산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를 여러 단체와 함께 시작하면서 낙태죄 문제에 결합하게 됐죠. 그때는 한국사회에서 프로라이프(pro-life), 프로초이스(pro-choice) 논쟁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갑자기 산부인과 의사들을 고발하면서 처음 단체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낙태죄 폐지까지는 얘기를 못 하고 주로 여성의 결정권 차원에서 모자보건법을 어떻게 얘기할지, 지금 벌어지는 사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식이었죠. 그러다 2015년에 장애여성공감 제안으로 '장애여성의 재생산 패러다임 바꾸기' 기획단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장애

여성공감, 희망을 만드는 법, 건강과 대안 젠더건강팀, 독립연구자 몇 명이 같이 기획단 활동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바꾸게 된 거죠. 그 모임이 2016년에 ‘성과 재생산 포럼’으로 전환되고 논의를 이어가다 검은시위도 함께 하면서 낙태죄 폐지 운동을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프로라이프 대 프로초이스의 구도가 아니라 생명이 다뤄지는 방식, 정상성이나 생명정치,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낙인과 통제 같은 것들이 낙태죄를 매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연구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Q.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반적인 ‘연구자’와 주제에 접근하게 된 선후가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하다 보니 필요해서 하게 된 거죠(웃음). 예를 들면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그 한계를 많이 느낀 거예요. 이게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 구도로 가면 한국사회에서는 이 맥락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전까지는 가족계획정책을 하면서 낙태죄가 사문화되다시피 한 상황이잖아요. 이 갈등에 대한 사회적 경험을 하지도 않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 판례와 이론을 통해서 생명권과 결정권이 대립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한국사회에서 이 구도로는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없고 맞지도 않는 거예요. ‘임신·출산네트워크’ 활동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답답했죠. 그러다가 ‘성과 재생산 포럼’을 하면서 한국 연구 역사라든가, 장애 여성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고,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방식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구가 된 거죠.

이게 나중에 낙태죄 폐지를 전면으로 걸고 운동할 때 방향을 잡게 해 줄 수 있었어요. 그 시점에서 저희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결정권 구도에 머물면 안 되고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확장해서 재생산 정의(reproductive justice) 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간의 연구 과정이 있어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같은 방향의 이름이 나오는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죠. 저한테는 이 과정이 활동하면서 막혔던 부분을 뚫어주고, 전망을 다르게 만들어가거나 방향을 찾아 나가게 해줬어요.

이 단체는 특이한 거예요. (웃음) 오래됐고, 단체 조직이 명확한 틀 속에 있을수록 이렇게 활동하기가 어렵죠. 정해진 팀이 있고 사업이 있고 대응을 할 사안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를 벗어나서 자기 식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저는 개인적인 연구활동을 하면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나영’으로 발표를 하는데, 다른 구성원과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크게 제약을 받진 않아요. 다른 단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Q. 연구와 활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네요. 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놀랐던 건,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면서 각각의 세부 영역에서 관련 분야를 연구해 오신 분들을 만났을 때예요. 근데 너무 현재의 상황을 모르시더라고요. 예전에 이론적으로 법적인 대안,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한 적이 있지만, 실제 현재의 여성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 요구들이 될 문제로 삼는지에 대한 생각이나 감각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놀랐어요. 지금 현장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인상을 받았죠.

또 현장 활동가들은 사실 활동만으로 시간이 버거워요. 한국사회가 워낙 다이나믹해서 일도 너무 많이 생기고, 뭐 터지면 계속 성명서 쓰고 하는데, 그때 자료 읽고 정보수집을 하지만 대응 이상으로 가긴 힘들죠. 그런 상태가 누적되다 보니 사실은 대응 이상의 새로운 전망을 찾는 게 거의 한 10년 동안 중단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지금처럼 백래쉬가 올 때 우리 안에 취약함을 발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성평등 논의처럼요. 학계에선 그래도 쿼어, 트랜스젠더 논의들이 사실 이야기가 꽤 되었는데, 실제 대중운동 현장에서는 연결이 잘 안 되어 온 거죠. 다양한 백래쉬가 나타났을 때 다시 논쟁이 이는 상황에서는 마치 논의 자체가 처음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게 연구와 현장에서 담론을 만드는 작업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연구도 활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연구가 실제로 운동에서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거나 도움이 되려면 연구자들도 접근하는 방식과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현장과 연구가 잘 순환되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은 기존의 분리된 상태에서의 연구와 어떻게 다를까요?

구자로서 이론적 연구 기반에서 다뤄보고 싶어서 나오는 결과물과 현장의 고민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달라요. 후자가 되어야 운동이 되죠. 연구자의 호기심으로 나온 건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좋은 얘기’가 되기 쉬워요. ‘연구도 활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연구가 실제로 운동에서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거나 도움이 되려면 연구자들도 접근하는 방식과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접점도 달라지겠죠. 이런 과정을 겪은 결과물은 현장에 제대로 유통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서 어쩔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죠. 단지 방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구의 과정과 현장에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벌어지는 변수들을 많이 알게 돼요. 연구자는 인터뷰를 한다거나 기사와 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맥락을 파악해서 글을 쓸 텐데, 실제 현장에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은 갈등

이나 고민이 사건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변수들을 밖에서 볼 때는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현장에 개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사이의 관계나 변수를 보고 있으니까 같이 작업할 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 부분도 보게 해주고요.

Q. 그게 학계에 속하지 않고 연구하는 것의 장점이 되기도 하겠네요?

아마 제가 똑같은 내용의 연구를 학술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면 폭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틀이 정해져 있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파고들어 가는 식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를 건드리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독립연구자로서 장점이라면 너무 룰이나 방식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겠죠. 연구 방식에 있어서도 활동하며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결과물이 나올 때도 담을 수 있는 이야기가 다르죠. 들이는 공에 비해서 공신력이나 주어지는 권위, 받아들여지는 위치가 다르다는 점은 단점이죠.

Q. 연구활동의 결과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게 참 애매한데... 그 학계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현장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번 자리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죠. 연구자로서만이 아니라 이 활동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론적인 내용을 어떻게 더 연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반면에, 그런 만남이 원활하지 않은 곳은 그냥 참고자료 삼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건,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글은 보통 어쨌든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글이에요. 현장활동가가 쓴 글이 게재되기도 하고 토론문에 실리기도 하지만 참고해서 읽고 반영하는 정도고, 실제 인용으로 달리는 글이 되진 않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어도 학위가 있는 사람의 글을 언급하는 거죠. 제 경우에도 제 글을 잘 읽었고,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 그 사람들 글에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연구프로젝트 할 때도 정해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와 활동을 많이 했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강의를 할 때도 공공기관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격이 안 돼서 그렇죠.

Q. 석사 학위 같은 규정이에요?

네. 제안이 오는데 자격이 안 돼서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름을 올리진 못하지만, 같이 활동한 내용만 반영하는 경우 있어요. 보통은 제가 참여하는 자리에선 학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진 않는 것 같지만 그럴 땐 조금 차이를 느끼죠. 그런 것들이 유연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Q. 실질적으로 학계와 현장의 구분이 있네요. 현장에서 활동과 연구를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접점을 늘려갈 수 있을까요? 그 사이의 위치를 '연구 활동가'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활동의 영역으로 만들고 싶다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활동가도 그냥 성명서 쓰고 집회 나가는 게 활동이 아니니까 당연히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사실 연구활동가라고 하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직 모르겠는 게 있어요. 액티비즘인지 액션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아직도 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웃음).

Q. 그럼 방향을 단체로 돌려서 이야기해봐요. NGA라는 단체에 속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단체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단체는 특이한 거예요. (웃음) 오래됐고, 단체 조직이 명확한 틀 속에 있을수록 이렇게 활동하기가 어렵죠. 정해진 팀이 있고 사업이 있고 대응을 할 사안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를 벗어나서 자기 식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저는 개인적인 연구활동을 하면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나영'으로 발표를 하는데, 다른 구성원과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크게 제약을 받지 않아요. 다른 단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Q. 그래서 활동가들이 자체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겠네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시간을 내야 하는데 일단 그게 어렵구요.

그 이유는 단체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입장과 자신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생기기도 하구요. 보통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밖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나 토론회를 열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민한 내용을 성명서나 활동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이 돌아가죠. 활동가는 활동하고 연구자는 연구해서 토론회 같은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NGA는 단체의 성격자체가 이슈파이팅에 집중하기보다 운동의 방향 중심으로 접근하는 단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여지가 더 있지만 다른 단체들도 그런 게 더 자유로웠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심지어는 토론회에서 자기 의견을 쉽게 이야기 못하고 우리 단체는 뭐를 했다고 하는 정도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토론을 못 하고 단체 입장을 이야기하는 선에서 소개하거나 방어하는 데 그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오히려 이슈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도 제약이 있고, 활동가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장기적인 전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2~3년 정도는 계속 고민해야 하는데 단체 내에서 활동가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게 있어야 운동도 다음 단계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여유를 가진 단체가 거의 없죠. 필요성은 다들 느끼시는 것 같고요.

Q. 독립연구자 네트워크라는 게 생긴다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 상이 잘 안 잡히긴 해요. 독립연구자라고 할 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것 같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학위가 있지만 지금 학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서 어떤 네트워크가 될지 잘 상이 안 잡히네요. 그래도 이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 건, 논문과 같은 학술적 자원에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이에요. 지금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글로벌 활동가들의 페미니즘학교,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 글로벌 액티비즘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페미니즘학교는 학교/적녹보라팀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활동가들과 만나고, 글로벌 액티비즘센터는 철학공방, 섹슈얼리티공작소 등 다양한 공방/공작소와 세미나를 운영한다.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는 의제별 프로젝트팀과 웹진 <글로벌컬포인트>을 만든다.

은 디비피아, 리스 이런 데 많은 소스가 있는데 맨날 남의 학번 빌려서 접근해야 하고(웃음) 그런 게 너무 어려워요. 재정적 자원도 그렇겠죠. 연구 진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그 한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학술적 소스들이 같이 교류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 되겠죠. 만약에 다른 현장을 가진 연구자들이 모인다면, 자기 영역을 교류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과 재생산 포럼’도 법, 의학, 인류학 이렇게 각기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각자 자기 고민을 낙태죄 폐지와 연결하다 보니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게 나오는 결과물도 좋을 것 같아요.

Q. 앞으로 어떤 활동이나 연구를 하고 싶으신지.

뭘 새로 시작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섹슈얼리티와 종교에 관한 영역이 제일 관심 있어요. 그리고 노동, 생산/재생산 영역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젠더만 논의했다면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할 때 운동의 의제와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요. 또 제가 중국이나 멕시코 활동가들과 만나다 보니 지구지역적 관점을 활동과 연결하고 싶고요. 





Interview

인터뷰

대학 밖에서, 독립연구자의 가능성을 묻다

독립연구자네트워크 무크지 <공리VOL.1>

인터뷰

대학 밖에서, 독립연구자의 가능성을 묻다

인터뷰: 강정석 | 지식순환협동조합

글: 박범기 | 문화사회연구소 / 사진: 장민경 | 자유인문캠프

지식순환협동조합(이하 '지순협')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정석을 만났다. 그는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다. 영화, 청소년, 청년, 교육 등 그가 연구하는 주제는 다양하다. 강정석은 기획자이기도 하다. 그는 연구자 정체성보다 기획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고 했다.



강정석은 영화를 전공했다. 연구자보다 기획자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왼쪽) 박범기, (오른쪽) 강정석.

강정석은 학부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영상문화연구를 공부했다. 현장에서 조감독 생활을 오래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필드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문화/과학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이하 ‘하자센터’)에서 일하면서 청소년 연구와 청년 연구를 하기도 했다.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관련한 연구를 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지순협에서 일하고 있다.

“제가 학술지에 논문을 쓴 적도 없고, 학술진흥재단에 차곡차곡 기록되는 방식의 연구를 해본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특정한 주제를 깊게 다룬 적은 없지만, 계간지 형태나 연구 사업들을 통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고, 레퍼런스를 얻는 기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다. 문화/과학, 하자센터, 지순협 등 다양한 필드에서 여러 자원들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그는 연구자로서 자신의 위치가 생겼다고 말한다. 나는 독립연구자로서 궁금증이 생겼다. 그는 ‘독립연구자’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학, 독립연구자의 등장

그는 독립연구자를 두 가지로 정의했다. 좁은 의미에서 교수가 되지 못한 연구자, 넓은 의미에서 자기 연구 현장이 있는 사람으로.

“가장 좁은 의미의 독립연구자라고 하면, 석·박사 학위 소유자 중에 교수가 되지 못한 연구자이죠.(웃음) 좁은 의미로 정의를 하자면요. 넓은 의미로 치면 자기 연구 기반이 있고, 자기 연구 현장이 있는 사람을 다 독립연구자로 봐야죠.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독립연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독립연구자들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지식 생산 구조의 변화가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생산의 지형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대학이 제 기능을 못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지식 생산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정석은 이렇게 말한다.

“취업이나 혹은 기능적 지식이라고 할까요? 대학이 수단화된 지식들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면서, 대학의 기능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지식을 보존하고 생산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대학이 더 이상 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스스로를 독립연구자로 포지셔닝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체계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학이라는 구조에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 대학 밖에서 해보자 이런 논의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학이 이렇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문제는 여기에는 자원이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회적 효용을 이끌어내는) 대안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영역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봐요.”

강정석은 독립연구자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대학이 점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학에서 연구자가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연구자는 어떻게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해야 할까? 강정석은 무엇보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향후 과제로 주어지겠죠. 저는 이게 지속성을 담보할 거라고 봐요. 지향점이 협력을 하는 쪽으로 가면 저는 어떻게든 그 자원들이 모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독립연구자들 쪽에도 자원들이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연구자들이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독립연구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죠.”

새로운 연구 협력 구조, 대안 대학 지식순환협동조합

대학이 제 기능을 못하고 지식 생산 양상이 변화하면서 독립연구자로서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경향 아래에서 주목해야 할 곳이 있다. 지순협 대안대학이 그곳이다. 지순협 대안대학은 2년제 대안 대학이다. 대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대안 고등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강정석은 이곳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대학 구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공교육 아래에서의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쓰기도 했고, 이 연장선상에서 하자센터 일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순협의 졸업생이 나오고 있는 최근부터 졸업생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학생들이 제도권적인 코스웍을 밟아 나가는 게 아니라, 비제도권 영역에서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할 필요가 있는 친구들인 거잖아요. 여기 들어온 학생들이 어떻게 향후 삶의 진로를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삶을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들이 저한테 생기게 되는 거죠.”

2년의 과정을 마치면 논문을 쓰게 된다. 논문을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몇몇은 대학에 가지 않은 채로 공부를 지속하고자 한다. 강정석은 이 들이야말로 독립연구자라고 말한다. 이들 중 일부는 고등학교도 대안 학교를 나온 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중졸이 된다. 이런 이들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강정석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순협은 “자유로운 지식 생산-소비 운동”을 표방하며, 2015년 1월 문을 열었다.

지순협은 1) 다차원적 협력 사회 전망 함께 세우고 나누기 2) 다차원적 협력교육 함께 만들기 3) 다차원의 협력적 주체로 거듭나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될까? 이들이 어떤 삶의 기반을 꾸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순협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기회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가? 어떤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가?”

강정석은 지순협 대안대학의 졸업생들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독립연구자의 쓸모는 무엇인가?



도대체 지식 생산의 쓸모는 무엇일까? 더욱이 대학을 벗어나 있는 독립연구자들의 지식생산은 어떠한 쓸모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강정석은 독립연구자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말한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를 능동적으로 바꿔 낼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됐든 간에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만 공부라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공부들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중략) 독립연구자들의 활동은 공부를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주입식으로만 배우는 것 혹은 평생교육에서 교양으로만 하는 것,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내 삶의 어떤 기획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공부

를 확장시키는 거죠.”

“다양한 문제들을 발굴하고 제기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사유의 폭을 좀 더 넓혀주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동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독립연구자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자유는 한계이자 장점이다. 강정석은 독립연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전공을 벗어나 다양한 영역에서 분야를 횡단할 수 있는 점이라고 말한다. 특정한 전공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횡단하면서 총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것이다.

“제 전공은 영화인데, 사회과학 글도 쓰고, 영화에 대한 글이나 세대론 관련된 글, 교육에 관련된 글도 쓰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횡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디에 정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특정한 전공분야가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중략) 전체적으로 횡단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독립연구자로서 활동을 하려면요. 그래야 되게 다양한 자원들과 이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중략) 아예 지식 생산의 차원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봐요. 횡단할 수 있는 지식, 연결과 다양한 분야들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내 연구의 반경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분야를 횡단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 그것을 통해 많은 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독립연구자의 쓸모일 것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강정석은 무엇보다 지식의 유통이라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유통에 있어, 기존의 학계 시스템과는 다른 언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저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식의 결과물에 대한 유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 학진이나 학회 같은 데에 유통되는 논문

형식의 딱딱한 개념어 중심의 연구 언어가 아니라, 전문 연구자들끼리 조금 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언어를 고민해 보는 것도 독립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 이 달라지는 경향 아래에서 독립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대학 제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하는 모든 독립연구자들이 아무쪼록 살아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집담회
Round
Table



제1부 Round Table

독립연구자, 너는 누구냐? : 정체성, 연구 생산, 플랫폼에 묻고 답하다

독립연구자네트워크 무크지 <공리VOL.1>

인터뷰

1부. 독립연구자, 너는 누구냐?

: 정체성, 연구 생산, 플랫폼에 묻고 답하다

진행+글 : 천주희 / 패널: 김홍미리, 김현준, 최태섭

사진 : 장민경 | 자유인문캠프 / 장소제공: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석사학위를 받고 대학 밖으로 나왔을 때, 설렘보다 막막함이 앞섰다. 나는 앞으로 연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사회로 나온 기분이었다. 소속이 없는 건 슬프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픈 나를 설명할 언어가 없다는 게 슬펐다. 그때부터 나는 ‘독립연구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생계비를 마련하면서 연구하는 일은 녹록치 않았다. 대체 다른 연구자들은 다들 무얼 먹고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주변 자원을 활용하는지 궁금했다. 지금은 민간연구소에서 월급 받으며 연구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궁금증이 멈춘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절실해졌다. 다른 연구자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과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나와 주변 연구자에게 필요한 자원과 사회적 안전망은 무엇인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도 뭐라도 해보면, 이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한 걸음 내딛어볼 정도의 용기와 해안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다. ‘독립연구자’라는 이 낯선 존재가 무엇인지 묻는 것으로 말이다. 이 집담회는 비슷한 고민을 나누던 동료들의 기획으로 시작했다. 독립연구자들의 생존 노하우를 공유하고, 생존 너머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태섭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수료. 지금은 학교에도 안 나가고 집에 혼자 있음. 소속 연구 단체 없음. 주로 문화연구와 문화정치, 계급 문제, 노동에 대해 관심이 많음. 공저 포함 5-6권의 책을 냄. 대표저서로 『잉여사회』가 있음. 요즘은 “무엇이 연구 활동을 추동해나가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함. 경쟁 대상이 많아졌고, 연구 성과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음. 지난 두 번의 보수 정권 이후 자원이 많이 없어졌지만,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나아질 것 같지 않음.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왜 나는 연구를 계속 할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음.



김현준

서교인문사회연구소(이하 서교연) 회원. 서강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수료. 지금 논문 쓰고 있는 중. 2009년도부터 연구집단 카이로스에서 인문사회과학 학제간 연구모임을 하고 있음. 대학 때부터 문화운동이나 시민사회에 관심을 갖고 학교 안팎에서 공부모임과 시민운동을 기웃거리다가 지금의 카이로스 연구동료들을 만나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었음. 전공은 사회이론, 사회과학철학, 지식사회학. 종교 관련 논문과 공저가 있음.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연구를 하면서 활동을 한다,’ 동시에 ‘활동을 하면서 연구를 한다’는 의미에서 연구 활동가라는 말을 씀. 박사에 들어간 것도,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운동을 30년 동안 해왔는데, 줄어들기는커녕 형태만 달라지고,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에서였음.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에 대한 폭력. 현장의 질문을 품고 있게 하는 것, 질문을 어떻게 풀어가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금은 페미니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동의하는 분들도 많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음. 이런 교착 상태에서 연구 활동가가 뭘 해야 하는지가 요즘의 관심사임.

독립연구자는 누구인가?

천주희 : 대학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독립연구자’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생소하시죠? 독립연구자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고. 각자 생각하는 독립연구자의 상이 다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독립연구자의 범주나 언어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술가와 연구자가 비슷한 지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술가는 그냥 예술가지 독립예술가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영화 쪽은 독립영화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서의 차이는 무엇일까? 연구자면 연구자이지 왜 나는 독립연구자라는 이름이 더 매력적이고, 그걸로 나를 설명하고 싶어하는 걸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독립연구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준 : 독립연구자가 뭐냐고 물으셨는데요, 저도 뭘지 잘 모르겠어요. 딱히 독립연구자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 젊은 연구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라도 기대야 하고, 어디라도 속해야 하고요. 사실 어디 소속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학교든 일반직장이든 어디든 소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바깥 아카데미에서도 강의를 하고요. 다방면에서 활동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최태섭 : 대중문화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수식어 중에 인디(Indie)랑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가 있어요. 인디는 그것의 생산과 소비 과정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언더는 메이저가 아닌 모든 것들의 총칭이죠. 이걸 연구에 대입해보면, 결국 아카데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밖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분이죠.

아카데미라는 게, 대체로 보면 대학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서 연구활동을 하기 어렵잖아요. 독립연구자들이 논문을 투고한다고 해 보죠. 일단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의 논문을 학회지 같은 데에서 받아주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어딘가에 소속되어있지 않다면 마찬가지로요. 운 좋게 통과가 된다고 해도 논문 게재를 하려면 심사비와 게재비를 내야 하는데, 그게 최소 수십만 원이죠.

게다가 제가 다니는 학교는 특성상 대체로 사회운동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고, 학계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연구자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간 해온 것을 보면 저는 항상 대중을 상대로 글을 써왔고, 주로 제일 많이 썼던 글은 칼럼이거든요. 그 외에는 계간지나 단행본인데요. 학술적으로 쓴 글은 석사논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연구자가 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카데미 시스템은 뭐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김현준 : 소위 학문후속세대들이 독립연구자라는 정체성에서 매력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제도권 아카데미아에서 자신이 계속해서 머물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거기서 생계를 책임져줄 것 같지도 않고. 나의 지식, 나의 말, 나의 연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받아줄 공간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기성학자들이 지배하는 제도권 아카데미아에서는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조금 둘러보면, 문제의식을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쓸모 있다고 생각해줄 수 있는 곳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서교연이나 카이로스도 그 중 하나겠죠. 국가나 아카데미아라는 커다란 상상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고, 그보다 작은 공동체, 자신의 (연구를)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커뮤니티, 정체성을 찾는 거죠. 이걸 한국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거겠지만요.

불안한 사회에서 그런 걸 찾는 하나의 방식으로써 독립연구자라는 말을 쓰

는 것 같아요. 독립연구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불안한 학문후속세대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그 호칭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 공감을 하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독립” 연구자뿐만 아니라, 요즘 많잖아요. “독립”출판 하시는 분도 있고, “독립” 서점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김현준은 지식이나 공부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언어가 별로 없어서 “‘무엇이 아닌’ 방식으로, 자본이나 상업성이 아닌 방식으로 독립연구자를 정의하는 거” 라고 말했다.

또 아까 예술과 비교를 하셨는데요. 재밌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술가는 상업성, 자본주의, 이런 것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대의를 가진 우리는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상업성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독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학문, 공부라는 것 자체가 누가 돈을 주니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계가 항상 문제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 자체가 좋아서,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요.

자본, 상업성으로부터 “독립”일 뿐만 아니라, 그냥 누구나 좋아하는 것 혹은 대중의 요구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으로부터도 “독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연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논평을 하든 비평을 하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연구자라면 응당 주어진, 당연시된 질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대중적

인 이데올로기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도 독립연구자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빠띠의 지원을 받아 카이로스 동료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독립연구자 정책지원 네트워크>(가칭)에서 후속세대연구자들에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연구, 조사하고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려면 독립연구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겠더군요. 가령 연구자들을 위한 무료 공공논문 데이터베이스나 복지정책 등을 만들려면 자격조건이라는 게 복잡해지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독립연구자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는지 논의했었어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연구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식을 생산하는 데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글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연구자들이란 결국 글을 쓰는 사람들이고, 글을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원고 노동자”라고 정의하면 어떨까. 독립연구자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주희 : 저희도 무크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큰 계기가, 독립연구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와 더불어 누구를 연구자로 볼 것인가의 기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다보니 범주까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대학원에 가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학계질서에서는 최소한 박사 이상을 해야 연구자로 인정을 하거나, 제도뿐 아니라 그 안에 학과 단위든 학교에서든 박사 이상은 해야 연구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석사 학위가 있더라도 연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 주변 동료들이나 선생님들은 석사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았다고 인정해주시거든요. 연구자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기도 하고요.

아까 연구자의 자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정책이나 제도를 활용하려면 연구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연구자를 증명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기존에 박사 이상을 신진 연구자로 대하는 국가의 기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술인복지재단이 있어요. 여기서 정하는 예술가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문학 작품이 아닌 다른 장르의 글을 쓰는 사람들은 예술가의 범주로 들어가지 않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예술에도, 학계나 학진에서 정한 신진 연구자에도 속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이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사회 보장 제도의 공백이요. 지식 생산자, 지식 노동자. 예술가들이 예술노동자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논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홍미리 : 제가 (독립연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기 오는 게 부적절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명료해진 것 같아요. 저는 연구자라는 생각 없이 박사 과정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박사는 연구자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바꿔 말하면, 박사 논문을 자격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박사논문은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자격증이니까 잘 쓰든 못 쓰든 빨리 써라, 네가 연구를 하고 싶으면 써라.” 이런 말들에 대해 제가 질문 없이 다가간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논문을 못 쓰고 있냐고 질문하면, 사실 이걸 기존 연구자들, 박사들 내지는 교수들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큰데요. 그걸 채워야 하는 사람이 부족하거나, 없어요. 통로도 없고, 지면도 많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계속 박사는 써야 한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수행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박사들이 하고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연구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것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공간은) 공식적으로 연구자라는 이름을 갖지 않는 노동자들, 원고 노동자들이 꾸준히 채우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비어 있었다는 것을 정리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의 박사분들, 시니어 연구자들이 온라인 접근성이 매우 낮아요.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이것과 일체되어서 살아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건 경험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걸 계속 설명하고 전달한다고 해서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연구를 관찰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무엇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요. 당사자의 언어로 말한다거나, 중간에 활동가들이 연구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요. 연구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수신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왜 (패널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냐? 연구 활동가라는 말은 계속 쓸 거지만, 저는 (제도권으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논문을 써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으니까요. 논문을 써서 들어갈 건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독립연구자라는 게 저한테는 가까이 오지 않은 거죠.

최태섭 : 어쨌든 저도 한국의 아카데미 시스템에 대해서 꽤나 비판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연구자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한 가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은 신뢰와 검증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카데미라는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 내부에서 연구자들이 상호 비판과 상호 검증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지식이 용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박사 학위의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다 검증하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독립연구의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려운 거죠. 수학계로 가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자신이 풀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독립연구자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방송국에 전화를 하고, 학회지에 투고를 하고. 그런데 검증해 보면 틀렸어요. 어쨌거나, 독립연구자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책적 요구를 할 때는, 독립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들을 어떻게 검증하고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연구자는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가?

김홍미리 : ‘연구자는 어떤 지식을 생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집담회 기획 측에서) 제안서에 보내준 질문을 갖고 왔어요. 제가 받은 건 연구자로서의 직업 정체성, 사회적 지식의 생산, 국가/시장의 구속에서 자유롭거나 벗어나고자 함. 중요한 것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고자 한다는 거죠.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건데. (웃음) 여기서 말한 사회적 지식이 뭘지 궁금하더라고요.

천주희 : 나의 쓸모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 혹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 차원의 지식 정도였어요. 지식에 대한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대학이나 연구자를 상상할 때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연구하고 학위를 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가 취업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식을 생산한다는 것도 일종의 예술과 비슷하게, 사회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성을 생산하는 게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지식이라고 붙여 봤던 거죠.

최태섭 : 그 주장이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사실 학계가 그렇다고 해서 자본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느냐 했을 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적극적인 반대나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본에 속한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식의 유용성 혹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로만 지식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신지식인 논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독립연구가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 자체가 독립연구라는 말에 위배되거나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 정말 많은 일이 있고 특히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대부분의 일들을 다 다루죠. 그렇지만 연구라는 프레임으로 그것을 다시 봤을 때 얻게 되는 어떤 종류의 지식이나 관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인기 없고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사회적인 영향력 같은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면, 독립이라는 말이 제약이 되는 거죠.

천주희 : 말씀을 듣고 보니, 어쨌든 제가 사회적 기능을 사회적 지식이라고 표현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현준 : 최태섭 선생님과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

실 어떤 형태로든 지식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지 상업적이거나 자본에만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연구주제 자체가 의미 있다, 그것이 사회적 기능을 하면 당연히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집단적 통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독립연구자가 제도권 학계와 적대적인 관계인 것처럼 말하거나, 제도권 학계는 뭔가 잘못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엉망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문후속세대나 학계 밖의 독립연구자들의 지식생산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권 학계처럼 지식의 자율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다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 것 같아요.

김홍미리 : 검증이라는 게 있죠.

김현준 :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검증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독립연구자는 그게 안 되는데요. 그래서 뭘 해야 하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려는) 네트워크가 답이다!'라는 거죠. (웃음)

최태섭 : 검증 프로세스 자체가 다 자원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돈과 사람이 투입되는 건데요.

김현준 : 그러니 이런 모임이 잘 돼야 한다는 거죠. (웃음)

최태섭 : 결국에는 돈과 사람인 것 같아요. (웃음)

문제는 이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거죠. 지식 자체를, 공부 자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언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무엇이 아닌' 방식으로, 자본이나 상업성이 아닌 방식으로 독립연구자를 정의하는 거 같아요.



제도적 한계를 뚫고 나온 독립연구자들은 연구를 어떻게 검증 할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김현준 :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사람만이라도 어떻게. (웃음) 객관적으로 서로를 평가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죠. 고립된 채 혼자 연구하다보면, 소위 주화입마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가지고요. 사회학계에 괴담 아닌 괴담이 있어요. 어떤 분이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아포리아 중에 하나인 구조와 행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대학생 때부터 막 글을 써서 교수들에게 보여주고 하더니 책을 써서 나타나셨어요. 드디어 자기가 해결했다고. 그래서 책을 막 돌렸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적어놨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몇십 년을 혼자서만 공부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나름대로 조직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교류하면서, 대화하면서 함께 해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단위 조직을 넘어서, 이제는 이런 흐름들이 한 두 명이 아니고 한두 조직이 아니니까, 이런 조직의 힘을 실제로 모아서, 대학원생 노동조합처럼 하나의 힘을 만들어야 국가를 대상으로 뭘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국가가 상징 재화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지식도 상징 재화 중 하나니까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아카데미 제도권의 문제, 평가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독립연구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직화가 필요하고, 그 조직화를 통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바꿔야하는 거죠. 지식 재화를 어떻

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기준 자체를 바꿔야 후속 세대들도 조금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김홍미리 : 질문한 내용이 비슷해요. 사회적 지식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러면 뭔가 필요한 걸 찾겠죠. 그래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여쭙보고 싶었어요.

최태섭 : 최근에 학계 바깥으로 나온 독립연구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한편으론 대학 바깥에 있는 연구소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학계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일도 많고, 정부지원금 여하에 따라서 고용연장이 안 되는 일도 많고... 이런 상황 자체가 지식이 예전에 가질 수 있었던 어떤 종류의 보편성을 (더 이상)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증거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정당한 과정으로 이루어졌어요. 지식인이 과도하게 가지고 있었던 권위 같은 것을 깨부수는 민주화의 방식으로. 그런데 한편으로는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같이 버려버린 면도 분명히 있어요. 학문에 대한 사회적 신뢰 자체가 지금 시대에서는 예전과 많이 다른 감각으로 소비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어렵게 해주는 사람이예요.

김홍미리 : 맞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어렵게 해주는 사람.

최태섭 : 어렵게. 되게 어려운 담론 표현, 이런 걸 끌어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 그런 사람들이 우리 편 지식인인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식을 생산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져버렸거든요. 벌써 한 10년도 넘은 얘긴데, 서구에서는 위키피디아 나온 다음에 기존의 지식생산체계에 대한 회의가 엄청나게 대두된 적이 있었어요. 위키피디아가 재밌는 게, 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느냐? 나도 지식의 생산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인 건데요. 문제는 그래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오타 찾아내는 사람이나 전부 다 같은 지식 생산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기여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요. 하지만 결과로는 그렇게 뭉뚱그려지고 그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과정이나 이런 것은 존중되지 않는 거예요.



최태섭은 “학문에 대한 사회적 신뢰 자체가 지금 시대에서는 예전과 많이 다른 감각으로 소비”되는 상황과 아카데미 외부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행위의 애매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적인 글을 쓰는데요. 신문 칼럼이 지식인가요? 신문 칼럼을 쓰는 사람이 지식인인가요? 글 쓰면서 고민되거든요. 내가 이걸 왜 쓰지? 누가 읽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댓글이 가끔씩 달리는데요. 요즘에 신문 기사나 칼럼에 댓글 다는 사람들은 글을 안 읽고 달아요. 일종에 매크로가 있어요. 여성혐오에 대한 글을 쓰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은 제가 10년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썼던 글에 달리는 댓글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아카데미도 아니고, 그 외부에서 지식을 생산한다는 행위의 애매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증가하는 거죠.

김홍미리 :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칼럼은 왜 쓰고 있는 걸까?

최태섭 : 거의 힙합 정신이죠. 하고 싶은 말 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는 느낌으로.(웃음)

김현준 : 비평의 장이랄까, 비평의 시장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닌가요?

최태섭 : 그게 무너졌죠. 비평이 제일 흥했던 장르가 영화인데요. 영화 비평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관련해서 웃긴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성일 평론가가 어디 가서 심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있었던 다른 젊은 교수 하나가 “식견이 뛰어나시네요. 영화비평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웃음) 얼마나 이 게 자체가 알아졌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아무 것도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김현준 : 이게 계승이 안 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계승이 결국 어떤 장의 자율성이고, 학문의 자율성이고 지식의 자율성인데요. 그걸 위해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슈, 이슈: 지식 접근권 & 저작권, 노동조합

천주희 :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슈를 두 개를 뽑아봤는데요. 하나는 디비피아 같은 논문이나 지식 플랫폼의 가격인상입니다. 가격이 인상되니까 일부 대학은 보이콧을 하기도 했죠. 연구 집단에서는 저작권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공론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대학원생 노동조합이 생겼잖아요. 노동조합의 출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 두 개의 이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다른 주제가 있다면 제안해 주셔도 됩니다.

김현준 : 저작권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저작권 소유의 문제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지만, 지식생산이라는 건 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하게 되잖아요. 레퍼런스로 점철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서 저작권을 배타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이 돈이 어디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지 알고 난 다음에 공공논문,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독점 논문 서비스 플랫폼의 이용료 인상으로 인해 구독 보이콧을 선언했다. 논문서비스플랫폼이 지나친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제가 알아 본 게 하나 있어요. 논문을 다운 받았을 때 논문의 저작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디비피아나 이런 데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계약한 학술지나 학회로 들어가죠. 학술지, 학회에 낼 때 우리가 저작권 동의를 내잖아요. 학술지에 실어서 상징자본을 얻는 대신에 학회는 돈을 받겠다, 이런 건데요. 그건 그것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사실 업체에서 학회에 주는 돈이 굉장히 적지만 기성 학회에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받죠. 그것도 문제는 뭐냐면, 학회의 운영비는 누가 충당해야 하죠? 시니어나 중진 이상의 정규직 교수들이 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회들에서 학회비가 잘 안 걸려요. 학회비가 안 걸려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문제를 저작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또 하나는, 학교에서 도서관 계정으로 들어가서 논문을 다운 받으면 저작료가 있다고 해요. 몰랐거든요. 저작료가 있다고 해요. 디비피아와 상관없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서 복사했을 경우, 그럴 경우 그 비용이 저자에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참관인 : 기록에 남고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라는 데에 가요.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분배 공고를 내요. 신청한 저자들에게 한해서만 복제 전송 저작권을 지급해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면 안 되고요. 그동안의 기록이 소급정산 되는 게 아니라,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이렇게만 정산이 되는 거예요.

김현준 : 저도 복제 전송권협회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제 논문이 연구재단에 올라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만 기록이 남아 있어 확인을 해보니까, 제 논문을 작년에 누군가가 4회 이용한 거예요. 총 합계가 120원이 조금 넘어요. 한 번 할 때마다 30몇 원이에요. 그게 쌓여서 적립이 되는

건데요. 그걸 제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뭔가 있긴 있다는 거죠.

참관인 : 그게 음원협회 하시는 분이 복제 전송 저작권 협회장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음원이랑 비슷한 기준으로 저작권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작권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해서, 실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몇 군데 의원실에 연락했어요. 의원실에서 답변이 왔는데, 논문은 공공재인데 그 사람들이 시스템 검색하는 데 원활하게 써주겠지, 저작권자에게 가든 안 가든 무슨 상관이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취급하는 음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논문이 공공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말고 있으니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의원실은 부정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웃긴 건, 논문은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디비피아는 왜 조사를 안 하냐고 하면, 있는 시장을 어떻게 없애냐는 거죠. 굉장히 모순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어요.

김현준 : 우리는 스스로 연구자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고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중이나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논리를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세금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연구 공간이나 연구비용을 준다는 것도 ‘연구자의 기준이 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연구자한테 왜 굳이 국민세금으로 이런 걸 해줘야 해?’ 이러면 설득이 안 되잖아요.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최태섭 : 아까 네트워크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네트워크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몇 번 열정노동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그랬는데, 일종의 프리랜서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고노동자라는 말이 아까 나왔는데요. 원고노동자라고 하면 독립연구자보다 범위가 더 커져요. 외주 원고나 잡지 등에 실리는 생활 글을 쓰는 사람들까지 다 원고 노동자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원고료라는 형태로 우리가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제일 큰 문제가 협상 단위가 없어요. 매

체별로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사정이 괜찮으면 주고, 안 좋으면 안 주고 이런 식이고요. 매당 만원이 정해진 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쯤에 대략적인 시세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오르고 있는 거죠. 말 씀드렸다시피, 중앙일간지도 원고료를 그렇게 많이 못줘요. 특히 젊고 덜 유명한 필자들은 그 안에서 거의 최소 기준인 거죠.

김홍미리 : 지면만 줘도 감사하다?

최태섭 :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니까. 지면이 없으니까. 있는 것도 사라지는 판에. 그래서 어쨌거나 결국에는 기준을 정하고,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단위들이 있어야 하겠고요. 당장 내일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김홍미리 :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지식 유통이에요. 제가 전공이 여성학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유통되지 않는 지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요. 대중서, 책을 기획하기도 했는데요. 공부하다보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여성학은 간학문적이니까요. 철학, 사회학, 정치학, 정말 많죠. 저는 제 질문에 있는 것만 공부하죠.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정작 대중 강의를 가면 “여자는 왜 군대 안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웃음) 아무리 어찌구 저찌구 하고 있지만, ‘젠더를 수행한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뭔지를 전달해야 하고, 그게 뭔지를 그 사람의 삶에 초대할 수 있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지면 내지 매체, 이렇게 충분한가? 그런 질문이 있어요.



연구활동가 김홍미리는 “유통되지 않은 지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고 했다. 그녀는 연구와 현장을 어떤 공간에서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여성주의 페다고지를 통해 연구와 현장의 접점을 넓힐지 고민이라고 했다.

여성학은 여성학회지가 있는데, 그게 도서로 편찬된 적이 있나요? 논문 모음집, 그걸 누가 사서 읽겠어요. 독립연구자 네트워크가 생기고, 공동체가 있고, 센터가 생기면요, 지면 내지는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고민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기존의 지식생산의 연장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연구자 자체가 현장과의 연결자가 되겠지만, 어떤 공간을 더 열어 둘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제 관심사는 페다고지에 있어요. 여성주의 페다고지. 어떻게 접점을 넓힐 것인지, 공간을 어떻게 열 수 있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독립 연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참관인 : 저도 칼럼을 연재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대중매체에 여성 칼럼니스트의 비율이 너무 적어요. 매거진에 ‘지면이 바뀝니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올해는 조사를 안 해봤지만 2017년에 그걸 다 정리해봤는데요. 60여명 중에 십여 명이 여성인 거예요. 50여명이 남성이거든요. 최태섭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조 같은 걸 만들어서 매당 얼마 이런 걸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성비 맞춰라’ 이런 것도 같이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슷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유통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려면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2부에서 계속)





제2부 Round Table

생존, 그 너머를 도모한 다는 것 : 정체성, 연구 생산, 플랫폼에 묻고 답하다

2부. 생존, 그 너머를 도모한다는 것

: 정체성, 연구 생산, 플랫폼에 묻고 답하다

진행+글 : 천주희 / 패널: 김홍미리, 김현준, 최태섭

사진 : 장민경 | 자유인문캠프 / 장소제공: 서교인문사회연구실



패널들은 각자 어떻게 생계 활동을 하는지,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다. (1부에서 계속)

다들, 무얼 먹고 사십니까?

천주희 : 대책 없고 애매모호한 지식 생산 활동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들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했어요. 생활비나 연구비 혹은 작업실이 필요하신 분은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일종의 생존 노하우랄까요. 또 하나는, 학교나 연구기관 밖에 있는 분들은 (논문 등 학

술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잖아요. 독립연구자들은 고립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주변에 어떤 연구자 혹은 어떤 공동체와 관계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홍미리 : 저는 여성학을 전공한다는 학문적 특수성도 있어요. 간학문적이 라는 거죠. 지식생산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있는데요. 박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수가 적다는 것에서 오는 문제가, 관련 분야 사람이 한두 명이 있어도 그 분야의 담론이 많아지지만 제가 관심 있는 여성 폭력 이슈 같이, 그 이슈에 전공자가 없으면 또 담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우침 현상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교수 전공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죠. 예전에는 여성학과 석사 과정이 한양대도 있고 여러 학교에서 개설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없어졌어요. 서울대, 이대가 있고, 성공회대에서 1년 과정이었는데 정식 과정이 되었죠. 거기에서 지식 생산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학생으로 참여하는 활동가들이 졸업 후에 어디로 가나? 다시 현장으로 가서 글 쓰는 노동자가 되나?’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거기서 다시 공부를 이어가는 사람은 성공회대 사회학과로 진학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여성학만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특수성이 독립연구자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학계에 논문 투고하고, 공식적인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은 여성학자들은 무얼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제도권에 현장 활동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데도 끼지 않는 사람이 저나 권김현영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생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강의가 많이 들어와요. 여성학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을 하지 않는 사람, 논문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몇 없다보니 저한테 강의가 오죠. 대출 이자 갚고, 생활비 쓰고, 이런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긴 해요. 특수한 상황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의 특수성이예요. 저 말고, 석사 졸업한 분들은 소득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

이 있죠. 그래서 비정규 연구직으로 들어간다거나, 인턴십, 단체, 아니면 생업을 다른 걸 병행하면서 하시는데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논문을 쓰면 보통 관료로 들어가거나 정부 기관, 공공기관에 들어가거나고요. 아시겠지만, 정권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해요.

김현준 :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학교 강의를 거의 못하고요. 한 학기 하고 잘리고 그런 식이니까 꾸준히 못해요. 요새는 다 아시다시피 학위가 있어도 강의가 힘든데, 학위가 없으면 어렵죠. 외부 강의를 좀 해요. 대학에서 조교와 프로젝트 연구보조원으로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것도 운이 좋은 편이죠. 이조차 없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천주희 :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기 힘들잖아요. 학기 단위로 끊기거나, 아니면 일회성 강의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 수입 변동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혼자 살아도 힘들겠지만, 만약에 가족을 이루어 사는 연구자들의 경우, 정말 무리해서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현준 : 그렇죠. 학원 강사를 하기도 하죠. 아이가 있으면 더 심하고요. 엄청난 케이스들을 봤어요. 아이가 셋인데, 학원을 주중에 뛰면서, 10년 걸려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이런 케이스도 많죠. 주변에 저희 또래의 젊은 연구자들을 보면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없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요. 어떻게든 겨우겨우 살아가는 방식이죠. 공동체나 조직에 속해 있어도, 개인의 생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 게 불문율이에요. 생계와 생존은 각자 알아서 하고, 활동은 같이 하자, 이런 식이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면, 가끔 강좌 프로그램 하나 같이 해서 약간의 수입을 얻는 그런 식인데요. 요즘도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아카데미 강좌기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는 연구자들이 이런 곳에 가거나 직접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김홍미리 :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가장 큰 거 같아요.

김현준 :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웃음)

최태섭 : 불안정하죠. 석사 때는 다행히 연구조교를 했었어요. 학교 안에 있는 연구소 출근을 해서, 그때 당시에 한 달에 60~70(만 원)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김현준 : 조교, 연구 보조원을 하면 다 기준이 있어도 그 기준 이하로 주는 게 관례잖아요.

김홍미리 : 기준 이하로 50 내지는 30 이렇게. 반환하지 않나요? 월 50이라고 하는 게, 70이나 100만원을 받고 50만 남겨놓고 보내거나.

김현준 : 그렇죠. 석사급은 80~100, 박사수료급의 경우에는 연구 프로젝트 보조원을 하면 150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정부(연구재단)에서 정해진 기준 이하에서 일종의 연구보조원 인건비 시장 가격이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각 대학 내외의 연구팀들 간에 서로 서로 눈치를 보며, 연구프로젝트들의 인건비 수준을 “관례”라는 명분으로 하향평준화하여 맞추고 있는 실정이지요. 또 연구보조원 한 명의 인건비로 두세 명을 고용한다든가. 애초에 연구재단에서 설정된 인건비 자체가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고, 관례로 인식되고 있죠.

천주희 : 우리가 공공기관에 펀딩을 지원하거나 연구 프로젝트를 맡을 때, 책임 연구원은 박사 이상이잖아요. 박사 학위가 없으면 책임 연구원이 될 수 없고, 박사 학위자가 두 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런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서 선정하는 신진 연구자가 박사 이상이거나 혹은 교수가 된 지 5년 이하, 이런 식이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프로젝트에도 제약이 많은데요.

김현준 : 몇 년 전만 해도 박사수료나 심지어 박사과정생이라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 선배 세대만 해도요. 그리고 가령 박사 학위 없는 강사도 단독 연구주체 같은 걸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학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학위자만 연구프로젝트 신청자격이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구자력에 절대적인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학위 없는 박사수료생이나 강사들만 지원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위, 강사자격 같은 것과 상관없이 국가(연구재단)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 학문후속세대의 문제를 복지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태섭 : 제가 석사 때 연구 조교를 했다는 게 벌써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생계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못 했어요. (웃음) 어쨌거나 그렇게 학교 안에 있으면 그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전부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학교 안에서도 결국에는 지도교수의 파워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것이 결정되는 일이 많고요. 박사과정을 포함해서 그 이후의 시간 동안에도 대체로 프리랜서로 살았죠. 운 좋게 연재를 하면 고정수익이 매달 연재하는 것만큼의 원고료인 거예요.

천주희 : 원고료가 주된 수입이라는 거죠?

최태섭 : 그렇죠, 그런데 고정수익이 대체로 50만원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달에 얼마나 일이 들어오냐에 달린 거죠. 어떤 달에는 계간지 같은 긴 글이 들어오면 조금 더 벌 수 있고, 어떤 달에는 강의가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수익을 대충 평균 내보면 월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태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몇 년 됐어요. 석사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고 봐야 하니까. 그런데, 저만 해도 사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운이 좋은 편인 거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것도 못 받고, 아니면 별도로 생업을 할 거예요. 수입이 너무 불안정하고, 적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대책 같은 게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출판시장 자체가 점점 더 유명저자 위주로 재편이 되고요. 굿즈가 잘 나오거나, 유명한 사람이 썼거나, 그 둘 아니면 책이 팔리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책 내시는 분들 중에서 책을 팔려고 내는 게 아니라 내고나서 강연하려고 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강연도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불러줘야 가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모험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단행본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품이 많이 들어요. 주의가 흩어지면 안 되니까 다른 일도 많이 못 해요. 결국 책을 쓰기 위해서 다른 일을 포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온다고 해서 팔린다는 보장이 전혀 없죠. 책을 쓰면서 느끼는 게, 사실 책은 대학교수나 은퇴한 연금 생활자들만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자원이 있고, 집이 있고, 그런 사람이 쓰면 책이 안 팔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독립연구자로서 출판물이나 이런 걸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김홍미리 : 그래서 저는 자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있어서 책 쓸 시간이 있는 것 아닐까? 왜냐면 강의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고라는 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고, 뭐 하나 꺼들면 다시 시동 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가?

패널들은 모두 “이쪽 세계에서는 너무 기본”(김현준)인 학자금 대출이 있었다. 김홍미리는 학자금 대출, 주택자금 대출, 사업이 망해서 갚는 대출을 매달 내고 있었고, 최태섭은 학부 시절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금은 2000만 원이 넘는 대출금이 남아있다. 김현준은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그 돈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소득이 없을 때는 건강보험료마저 부담스럽다. 소속이 없을 때는 논문 한 편 다운 받는 것도 어렵다. 논문 자료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강의가 많이 들어오면 소득 활동에는 도움이 되지만 연구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김홍미리 선생님에게 방학은 일이 없는 보릿고개다. 1년에 8개월은 벌고 4개월

은 일이 없는 상황이다. 시간강사들도 방학이면 보험이 자동 소멸된다. 1년에 한 학기만 하더라도 이듬해에 보험료가 올라간다. 김현준 선생님은 강사를 하는 기간에 2대 보험이 되지만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했다.

불안정한 소득활동, 학자금대출+α 대출, 일시적인 사회보험 서비스 등. 집담회에 참여한 패널과 참관인에게 물었다.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상상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소득. 연구공간. 연구자료 접근성과 무료 공급 DB.
데이터 자료 접근권. 연구 공동체.

지식생산의 가치 인정. 사회적 신뢰감. 그리고 학자금 대출 감면.

연구자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연구자 등록 서비스. 독립연구자 플랫폼.

최태섭 :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보면 필요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책의 일부가 필요한데, 책값이 비싸면 못 사요. 결국 자료를 구비할 수 있는 돈이나 권한이 없다는 것은 연구의 질이 하락하는 결과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연구공간이 없잖아요. 집이 막 대quil 같으면 모르겠지만 대체로 자기 방 한 칸 정도

밖에 없을 텐데, 생활공간에서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동안 카페를 전전해왔어요. 스타벅스에 갔다 바친 돈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요. 요즘에는 낮에 도심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면 딱 차 있어요. 다 노트북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도 자기 공간이 없어서 여기에 온 거예요.

또 생계 문제인데요.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가 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한다고. 모두가 낸 세금을 공공적으로 지출하는 게 될 텐데요. 단순히 내가 혼자서 공부하느라 힘드니까 너희가 나에게 돈을 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김홍미리 : 지식 생산 노동의 사회적 가치라고 통쳤는데요. 원고료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간 공부한 내용과 고민한 역사를 한 페이지에 담는 건데, 그걸 한 장에 10만원으로 통치거든요. 지식생산 노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장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질문이 있죠. 너무 억울한 건, 공공기관에서 강사를 등급별로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3급, 2급, 1급, 이렇게. 교수 내지 정당 대표, 국회의원은 50만원에서 40만원까지 가능한데, 학위가 없는 사람은 10만원에서 15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교수들을 오히려 적게 줘야 하고, 현장 활동가나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많이 줘야죠. 기준이 너무 부당한 거죠.

최태섭 : 김영란법 때문에 변한 게 하나 있어요. 원고료나 강연료 상한이 30만원이 됐잖아요. 그 맥락을 보면 기관장이나 고위공직자들 같은 사람들에게 기업 사보나 이런 데서 원고청탁을 하거나 강연을 요청해서 돈을 많이 주는 식으로 우회적인 로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이 그 상한이 정말 상한이 되어 버린 거예요. 어떤 글이나 강연은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기도 할 텐데, 그런 게 이제 그냥 정해져 버린 거죠.

천주희 : 원고료가 너무 지나치게 낮은 것도 있고요. 학위에 따라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등급이 낮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차원에서, 논문에 등재하거나 혹은 뭔가 발표를 할 때, 자기 돈을 내고 하잖아요. 그리고 디비피아라든지 논문이 축적되어 있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 사람들이 돈을 내고 다운을 받아야 하죠. 지식을 생산하지만, 재생산이 안 되게 하는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들이 자기 돈 내고 연구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최태섭 : 그렇게 해서 학회들이 폐돈을 벌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거 같아요. 저는 디비피아나 키스(KISS)가 자꾸 사용료를 올리는 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돈이 막 엄청 많이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중간에서 가져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예 돈이 없는 거죠. 특히 인문사회 쪽에서는 아예 연구를 시작할 때 정도나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그걸 소진해나가는 방식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른 종류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편이 거의 없는 거죠.

김현준 : 저는 공간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부분들도 다 중요한 거지만. 공간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놓고 있는 국공립 공간이 많은데요. 하다못해 도서관 귀퉁이라도요. 도서관 서비스랑 연계해서 할 수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공유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부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복사, 자료 접근, 이런 걸 하고요. 공간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하게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학회도 같이 하고, 연구도 같이 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고요. 공간과 아울러서, 연구자 등록 같은 것도 나오는 거예요. 공간을 무작정 이용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자격조건으로 등록하게 하고, 논문 같은 것도 다운 받을 수 있게 하고.

어쨌든 갈 공간이 없다는 점. 특히 독립연구자들은 소속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심지어 자기 학교의 도서관도 잘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은 공간이 있으면, 오갈 데 없는 연구자들에게 숨통을 좀 틔어줄 수 있는 거죠. 집

에서 연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연희문학창작촌은 문학인 전용 집필실로, 국내 작가들의 집필활동 뿐만 아니라 해외 문학 교류를 위한 레지던스다. (사진출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천주희 : 저는 예술활동도 하고 있는데 예술가들은 전용 레지던스가 있어요. 심사를 통해서 예술인들은 6개월 ~ 1년 정도 레지던스에서 작업을 해요. 저는 연구자들에게도 이런 공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공간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주거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삶은 불안정한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살기 때문에 생활비는 똑같이 들잖아요. 주거비가 연구비나 학자금 대출금 못지않게 많이 들고요. 최근에 예술가들을 위한 공공주택, 사회주택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인문사회계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술인 레지던스 같은 걸 제안하고 시도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최태섭 : 예술인 복지법 만들어질 때 약간 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술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사회적으로 상층인 것처럼 착각되고 있는데 이제는 꼭 그렇지 않잖아요. 게다가 공간문제가 주거차원에서조차 약순환이에요. 연구자들이 자료를 사서 모으면, 집에 점점 공간이 사라지고, 이사 갈 때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책 짐이 이삿짐센터에서 제일 싫

어하는 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맨날 노트북에 책에 이고지고 다니니까 건강도 나빠지죠. 저도 얼마 전에 거북목 진단을 받았는데 만성질환인데다 치료비도 싸지 않아요.

김홍미리 : 독립연구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기보다는 독립연구자 센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 와서 공부하고, 책도 거기 구비해놓고, 와서 세미나도 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비슷하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집에서 접근성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점별로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독립연구자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겠나요. 나아가서는 지식생산의 공공성, 그것의 노역—노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인정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천주희 :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유공간(무중력지대)을 만드는 것처럼, 혹은 혜화동에는 연극센터가 있잖아요. 연구자들을 위한 공간을 고민하고,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00명의 연구자가 모인다면? 우리는 무얼 할 수 있을까?

100명의 연구자들이 모인다면 우리는 어떤 연구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만약, 네트워크가 생긴다면 무엇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 적어도 혼자보다는 더 나은 연구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천주희 : 저는 청년연대은행 토닥이라는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토닥은 조합원들이 조합비와 출자금을 내고, 서로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는 금고 역할을 해요. 연구자들에게도 자조금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또 예술인복지재단처럼 연구자 복지재단 같은 것도 생기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회 보험이 끊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안

전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시다면?

김홍미리 : 좋은 생각 같아요. 학교 밖에 없잖아요. 학교 밖에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말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 만들어내면, 지식생산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그러면서 안에서 서로서로 조력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천주희 :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기본소득도 실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최태섭 선생님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작업에 집중해야 하는 6개월 동안은 다른 일 안하고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월 얼마 정도 기본소득을 몇몇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홍미리 : (학술지원이) 인문학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조금만 벗어나도 몇 백만 원 씩 받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최태섭 : (독립적으로 생산된 지식) 어떻게 더 퍼트릴 수 있고, 어떻게 더 지면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이 최근에 젊은 문학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출판사들도 새로운 문예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동인이 형성됐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지식이 보편성 자체를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다소 서로 고립된 팩션(faction)들이 별 다른 교류나 논쟁 없이 공존하는 느낌을 받아요.

김현준 : 유통 애기와 관련해서 생각한 건데요. 닷페이스(소셜미디어 기반 뉴미디어)도 있고,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명 정도 되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확산하는 거예요. 차우차우 포럼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논문을 같이 읽거든요. 그런 걸 확장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인문학 협동조합 온수의발견에서 하는 거고. 얼마 전에는 어떤 출판사에서 괜찮은 석사논문을 뽑아서 단행본 내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었죠. 하다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요. 아무튼 그런 작업들의 형태가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출판이랑 연결할 수도 있고요.

참관인 : 논문 발표회를 얼마 전에 카우앤독에서 했었는데요. 박사논문을 발표하는 거였어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학원생은 한 명도 안 오고, 경력단절 여성 30명이 돈을 내고 왔어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왔고, 여성정책을 연구하시는 연구원 분들도 왔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해주는 연구자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연구자는 실제 당사자 봐서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고요. 대중들이 논문에 관심이 없지 않아요.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인데도 대중들이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천주희 : 그걸 잘 전달하거나 만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겠네요.

김현준 : 똑같은 내용을 해도 학회에서 했다면 아무도 안 왔겠죠. 세팅 자체를 저렇게 하면 대중들이 많이 와요.

우리, 또 만나요

최태섭 : 다른 분들을 만나 뵈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항상 사람에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웃음)! 조직해주는 움직임이 있으시면 저 같은 사람은 감사할 것 같아요. 동참할 의사도 있고요.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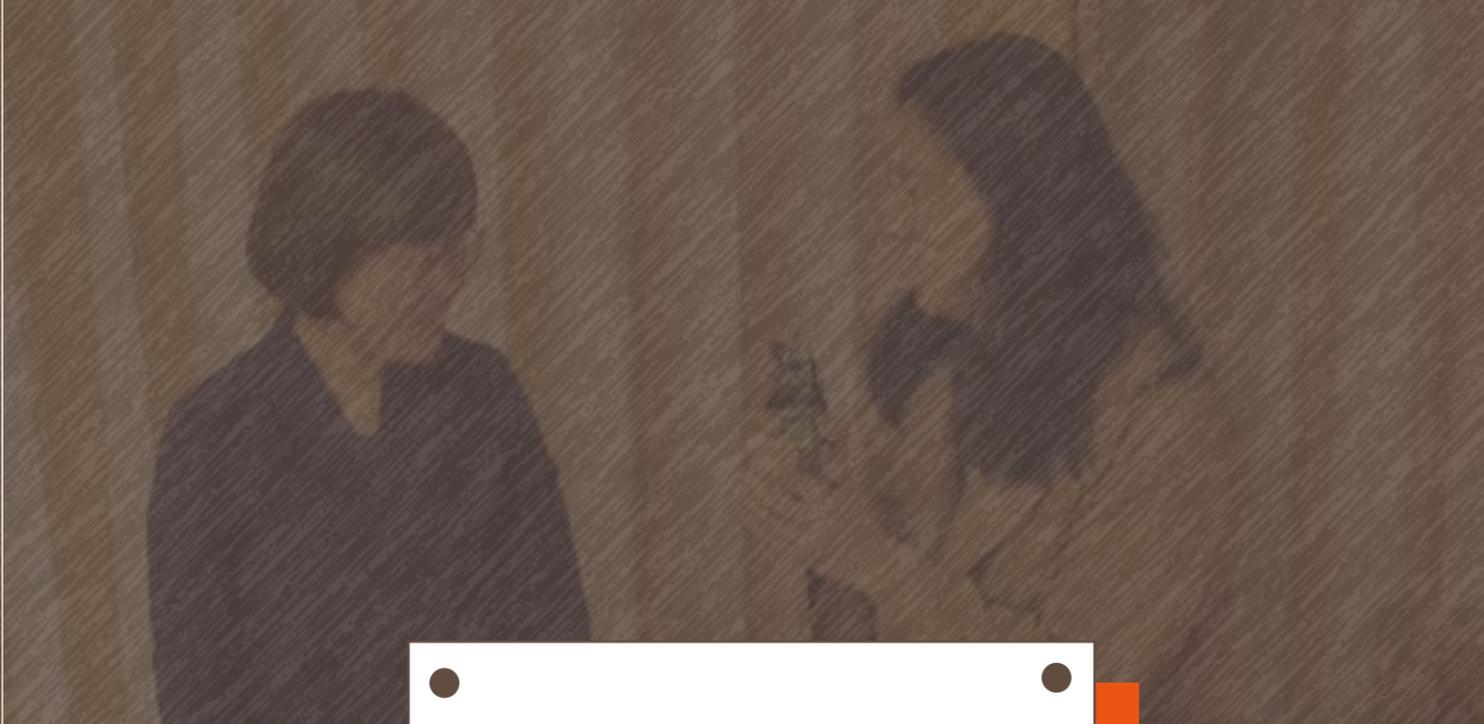
김현준 : 2012년에 데모스 포럼에서 비슷한 걸 했었어요. ‘아무 것도 아닌 자들’이라고 해서, 그때도 제가 패널로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최종 결론은 ‘닭집 사장이 되는 거다’, 그게 제가 발굴한 이야기인데, 2012년도거든요. 그 이후에 데모스가 해체되고요. 그때는 하나의 조직에서 끝났는데요. 네트워크로 확장하고, 이런 문제를 성찰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걸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모임 했던 사람들도 돌아보면서 과거에는 어땠고, 그 다음 단계가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문후속세대들, 아니면 독립연구자들의 문

제의식과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야 아카데미 학술 시장의 흐름이나,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었고, 이런 성찰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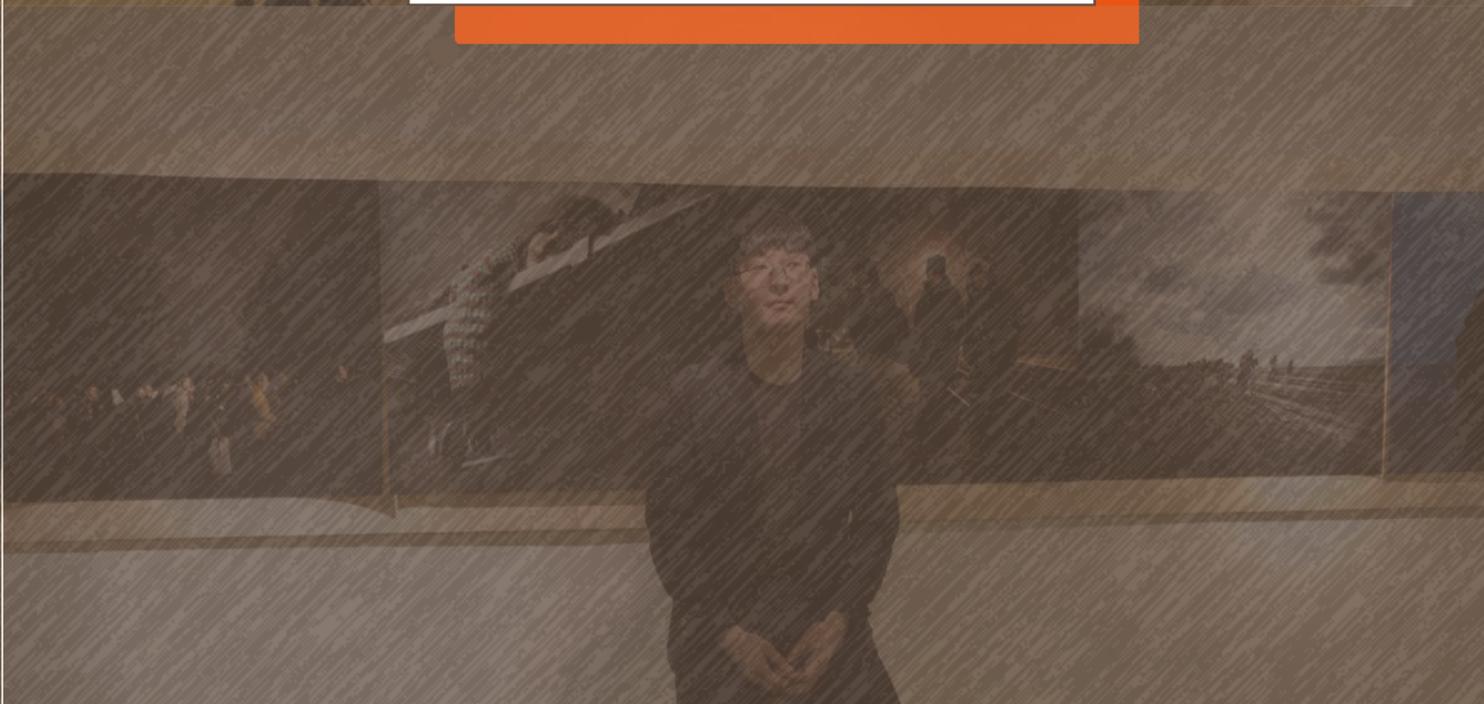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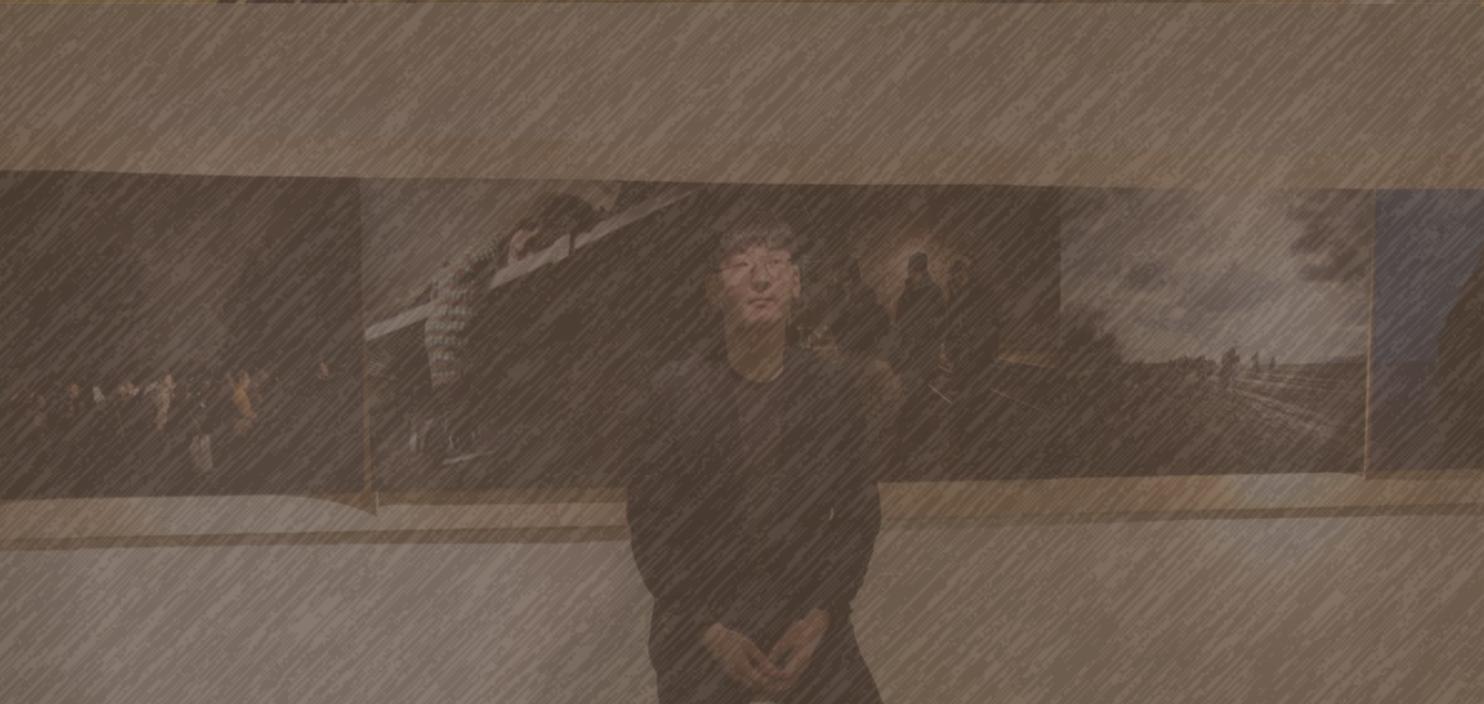
김홍미리 : 저는 되게 무식했다, 이런 걸 많이 알고 가요. 뭐에 대해 무식했냐면,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이게 저의 한계인지, 여성학과 다른 인문 네트워크가 연결이 없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권운동 분야에서 페미니즘이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이 만나지 않았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 비슷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가게 되네요.

천주희 : 저는 오늘 자리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담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크라우드펀딩
Funding





펀딩 Funding

'연구 클라우드 펀딩'에서
후원자를 찾습니다.

WANTED

"연구 클라우드 펀딩' 에서 후원자를 찾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석·박사 졸업자들, 그리고 대학 밖 학술 공동체 등에서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변변한 사회적 안정망과 자원 없이 홀로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스스로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진행한 실험이었습니다. 연구자와 시민을 잇는 연구 클라우드 펀딩은 지난 2월 참여 연구자를 모집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총 13건의 연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총 18명의 연구자가 지원해주셨습니다. 프로젝트에 지원해주신 연구자들과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회의에서는 연구 구체성, 연구 진행 정도와 완료 기간 고려, 펀딩 성사 가능성, 연구활동에 긴급하게 경제적 자원이 필요한 경우를 우선 순위로 고려하여 아래 3편의 연구를 선정했습니다. 이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①프로젝트 펀딩 목표액은 450만원 입니다.

②150만 원 씩 3편의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③펀딩기간 : 2018년 4월 1일 ~ 4월 30일

④참여하기 : <http://gunli.net/funding/>

가. 한국 코믹스 페미니즘 계보

/ 갱, 박희정



①연구제목

코믹스 페미니즘 연구 : 여성주의 만화비평의 흐름과 2015년 전후 주요 웹툰 분석

②연구소개

우리는 왜 웹툰을 연구하나?

출퇴근 길에, 잠들기 전에, 웹툰을 보는 분들 계신가요? 웹툰은 이미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문화 콘텐츠이자, 최근에는 페미니즘적 이슈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미디어이기도 합니다. 웹툰 <단지>는 가정 폭력에 노출되었던 많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웹툰 <며느라기>는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로서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투명하게 보여주었지요. 또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여성 캐릭터 (<마스크걸>) 도 그려지고, 스스로의 난관을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강인한 여성 (<냄새가 보이는 소녀>) 등 다양한 여성 캐릭터가 웹툰에서 실험되고 있습니다.

③연구일정

- 3월 : 연구 웹툰 리서치 및 리스트업
- 4월 : 코믹스 페미니즘 비평 방식에 대한 방법론 연구
- 5-7월 : 연구
- 8월-9월 : 연구결과 발표,리워드(reward)

④연구비 사용

1순위. 웹툰 구입 2순위. 참고도서 구입

현 시점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보다 이미 완결된 웹툰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웹툰이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웹툰 플랫폼 특성상 에피소드 자체가 길고 매화 구입해야하다보니 웹툰 구독 비용이 만만치 않아..ㅠㅠ 펀딩 금액으로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 "이번 미팅 때 팀장님께 프로젝트 컨펌 받았어?"

/ 송창은



① 연구제목

영어가 일상화된 현대 한국어에 대한 소수 집단의 태도, 인식, 그리고 정체성 연구

② 연구소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번 미팅 때 팀장님께 프로젝트 서류 컨펌받았어? 받기 전에 크로스체크 하자"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영어를 일상에서 쓰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날 한국어에서 다양하고 혼잡적으로 쓰이는 영어에 대해 연구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소수 집단인 중국 동포(조선족)와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떤 인식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처한 언어적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현대 한국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자면, 영어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한국어나 한자어 대신 영어를 쓰고, 신조어도 만들어내고, '콩글리쉬(Konglish)'라고 불리는 우리 식의 영어 사용도 늘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영어 사용은 이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팀장님한테 컨펌 받았어? 컨펌 받기 전에 크로스 체크하자", "아이데이션 미팅은 언제로 픽스할까요?", "여기 인테리어 데코 너무 이쁘다.", "시즌오픈인데도 이번 달 페이지를 아직 못 받아서 매장가서 아이쇼핑만 했어." 등등. 들어보셨죠? 이런 일상에서 영어 사용은 중국 동포, 북한이탈주민,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한국어를 이주민 혹은 디아스포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할까요? 이런 언어사용과 관련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가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현대 한국어가 어떻게 변화해갈지, 그리고 이들의 언어 사용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이들의 언어 권리, 언어 교육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③ 연구일정

- 3-4월: 연구 참여자 모집 및 인터뷰
- 4-5월: 인터뷰 및 자료 분석
- 6월: 초고 작성 + 주변 피드백을 통한 수정 보완
- 7월: 연구결과 완성
- 8월: 논문 인쇄
- 9월: 리뷰드 발송 예정

④ 연구비 사용

- 1순위. 연구 참여자 모집 및 인터뷰 진행비(사례비+다과)
- 2순위. 논문 인쇄비
- 3순위. 교통비 및 참고문헌 구입비
- 4순위. 생활비

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진다?!

/ 여기봉



① 연구제목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진다?! : 충남 당진의 탈석탄화를 둘러싼 이야기

② 연구소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정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로 나아가는, 에너지전환의 시대는요? 여러분에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재생 에너지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탈석탄화 인데요. 탈석탄화는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하는, 에너지전환이 풀어야할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연구를 통해 여러분께 국내 최초로 탈석탄화를 이룬 충남 당진의 사례를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란?



출처 : <http://www.pexels.com>

주전자나 냄비에 열을 가해 물을 끓일 때, 우리는 하얀 증기가 올라오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이 증기를 활용하는 거대한 설비라 볼 수 있는데, 증기를 만들기 위해 대량의 석탄을 태워 물을 끓이고 이 때 발생한 고온·고압의 증기를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라는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역사는 1882년 에디슨 전기·조명회사가 미국 뉴욕에 펄 스트리트(Pearl Street)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시작됐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화력발전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석탄화력발전소는 2013년 기준, 전 세계가 누리는 전기의 약 41%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 또한 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930년 서울 마포구에 세워졌던 국내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인 서울화력발전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이들은 국내 총 전기량의 약 48%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발전 에너지원(석유, 원자력, 풍력 등)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 국내 석탄화력발전량 비중이 약 3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7기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적으로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즉, 그만큼 우리는 석탄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량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이 사실이 더욱 확연해집니다. 한국은(2014년 기준), 중국, 미국, 인도, 독일에 이어 석탄화력발전량이 5위,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석탄화력발전량이 얼마정도인지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출처: 당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2018)

앞서 살펴본 상황과 역설적이게도 석탄을 포함한 기존의 화석연료는 현재 전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불러일으킨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의 환경, 지구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죠. 석탄은 이 중에서도 온실가스(지구온난화의 대표적 원인)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 하나가 바로 이산화탄소(CO₂)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온 단어일 텐데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 석탄의 비중이 약 46%에 달해 다른 에너지원들 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014년 기준). 이를 국내로 한정했을 때는 약 58%로 석탄의 비중이 더욱 높아집니다.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미세먼지는 뇌졸중,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심장병,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미세먼지 농도를 매일같이 확인하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상의 피해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탈석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탈석탄화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 탈석탄화를 공식발표하거나 석탄화력 금융지원을 축소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폐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칙적으로 금지’,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재검토’ 등의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공정률 10%미만) 중 2기만(충남 당진에코파워 1·2호기)이 액화천연가스(LNG)로의 전환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강릉, 삼척 등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 입지에정지에서는 이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는 건설 계획 중이던 석탄화력발전소 2기(당진에코파워 1·2호기, 이하 당진에코파워)에 대해 국내 최초로 탈석탄화를 이룬 충남 당진시의 사례에 주목해 갈등구조와 탈석탄화 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 예정지였던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를 중심으로 갈

등의 원인, 구조, 시민들이 주도한 탈석탄화 운동의 변화양상을 단일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단일사례연구방법은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특정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설명하는데 있어 용이해 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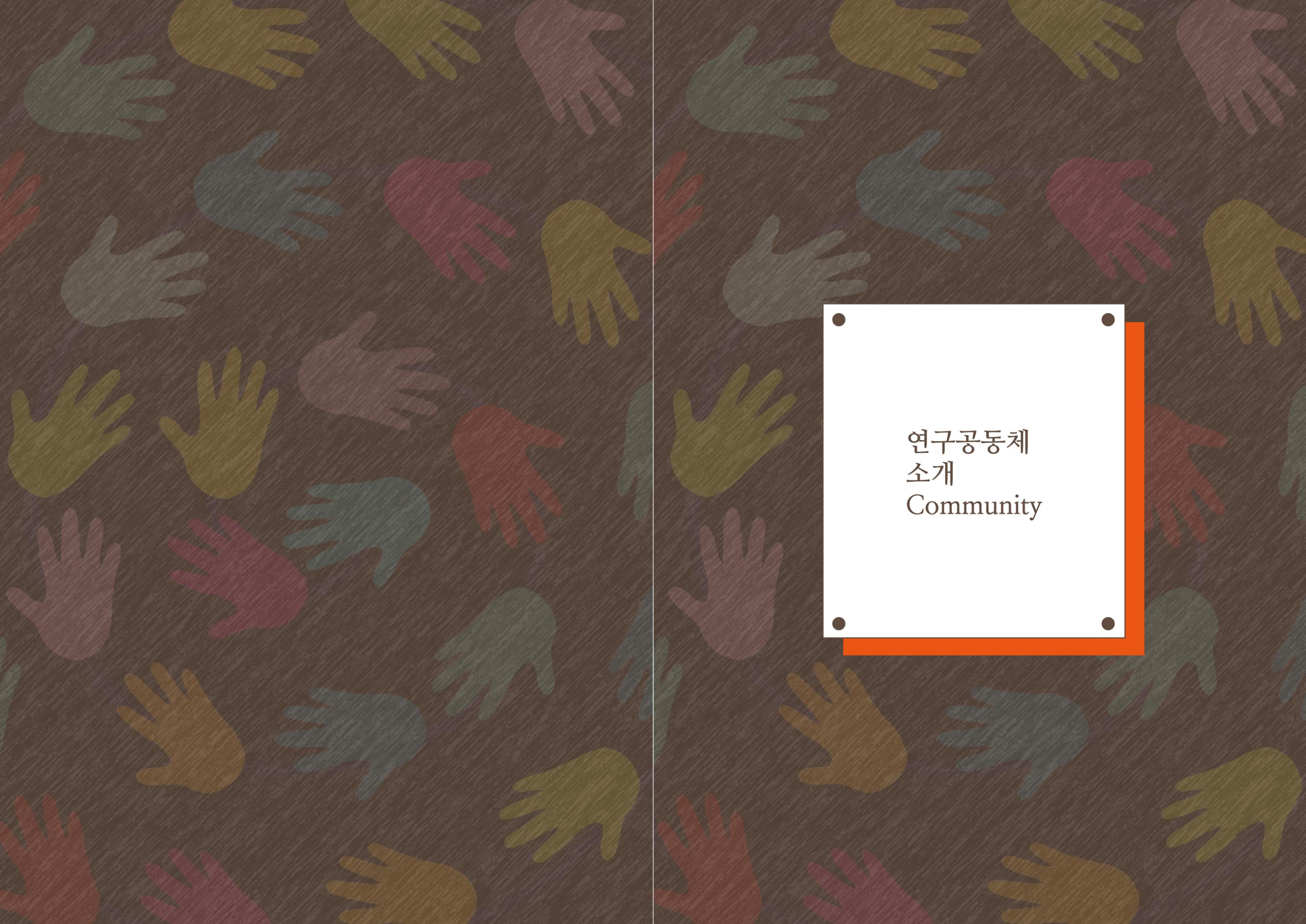
또한 앞서 소개드렸듯이 현재 삼척, 강릉, 보령 등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탈석탄화 운동 또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연구는 당진시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추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된 갈등 구조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방향을 미리 예견하고 이에 적합한 갈등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연구일정

- 3-4월: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 5-6월: 연구 분석 및 논문 작성
- 7월: 논문 완성
- 8월: 논문 인쇄
- 9월: 리워드 발송 예정

④ 연구비 사용

- 1순위. 교통비 및 숙박비
- 2순위. 연구 참여자 인터뷰 사례비
- 3순위. 논문 인쇄비



연구공동체
소개
Community

대학 밖에는 어떤 연구 공동체와 단체가 있을까요?
함께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든 연구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감이당

<http://gamidang.com/>
인문의 역학 등

노동자운동연구공동체

<http://blog.daum.net/sociostra>
뿌리 계급운동, 대중주체, 혁명주의 등

노들장애학 궁리소

<http://goongree.net/>
장애학, 서양철학 등

다중지성의정원

<http://daziwon.net/>
문학, 철학, 언어, 과학 등

대안연구공동체

<http://cafe.naver.com/paideia21>
철학, 문학을 중심으로 한
광의의 인문학, 언어학 등

만인만색네트워크

<http://10000history.tistory.com/>
역사해석의 다양성, 역사연구의 전문성, 대
안적 학문연구 등

말과활아카데미

<http://gajangjari.net/>
현대철학, 고전강독, 논픽션 글쓰기,
페미니즘 등

문화사회연구소

<http://kccs.or.kr>
문화산업, 문화정책, 문화이론, 문화연구 등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http://saesayon.org/>
대안경제, 생활&현장참여형 연구 등

서교인문사회연구실

<http://seogyo.net>
정치경제학, 사회학, 페미니즘, 문학이론 등

수유너머 104

<http://www.nomadist.org>
코문주의 연구공동체 등

여성문화이론연구소

<http://www.gofeminist.org/index.php>
여성주의, 문화이론 등

역사문제연구소

<http://www.kistory.or.kr/>
역사학, 역사, 동아시아 평화 등

연구집단 카이로스

<http://cairos.parti.xyz/>
인문학, 사회과학, 신학 등

연구모임 아래

<http://cafe.naver.com/ahrae>
사회주의, 고전읽기, 정치사상, 과학사 등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http://www.chsc.or.kr/>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의 건강 문제 등

우리실험자들

<http://www.experimentor.net/>
비자본주의 · 윤리생산적 철학 공동체 등

인문학협동조합

http://cafe469.daum.net_c21_/home?gpid=1RhU8
인문학, 국문학, 비평 등

지 - ㅎ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http://blog.jinbo.net/nga_sf/
지구지역적 변혁을 위한
'글로벌 액티비즘, 페미니즘 학교 등

지식순환협동조합

<http://cafe.naver.com/freeuniv>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의 통섭,
대안적 삶의 실천 모델 등

철학학교 짓다

<https://kimmentor.wixsite.com/jdphil/copy-of-our-school>
서양철학, 현상학 등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http://www.kilsh.or.kr/>
노동, 건강권, 보건, 안전 등

만든사람들
Staff

기획

독립연구자네트워크 준비모임

(문화사회연구소 x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함께 한 사람들

크루

*기획단: 강남규, 김성윤, 박범기, 천주희

*디자인: 차지은 *홈페이지: 장운영

*연구 클라우드 펀딩 웹포스터: 김상민

*편집/교정교열: 천주희, 박범기, 강남규

참여자

*에세이1: 전주희 *에세이2: 최혁규, 강남규

*인터뷰1: 나영, 안태진 *인터뷰2: 강정석, 박범기

*집담회: 김홍미리, 김현준, 최태섭, 천주희

*사진/영상: 장민경

*연구클라우드펀딩: 갱&박희정, 송창은, 여기봉

Thanks to

이 홈페이지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